

버팀목자금 점검 현장서 눈물 흘린 박영선 13

신동빈 "과거 집착 기업엔 미래 없다" 14

코스피(14일) **3149.93** (+1.64P)
코스닥 **980.29** (+1.16P)
환율(달러당 원화) **1098.00** (+2.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88%** (+0.0009P)

제2 '방배동모자' 없게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

서울시, 이르면 4월... 전국 최초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전면 개편 돌봄SOS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제
민법상 직계 혈족과 배우자는 가족을 돌볼 의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생활을 도와줄 가족(부양의무자)이 없을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른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단체 중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빠른 조치다.

서울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원화된 기준을 적용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4168가구(5400여명)이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여 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4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내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해 사회복지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선한다. 앞으로 서울 시내 위기가구를 위기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한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아진 노인 가구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한다. 예컨대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없는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으로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이 완화된다. 노인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 지원, 동행 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폭이 넓어진다.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한다.

홍인석 기자 mystic@



美 하원 트럼프 '두번째 탄핵' 가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워싱턴D.C./AP연합뉴스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與,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추진
신중론서 선회...재원마련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코로나 방역)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피해 업종의 실제 손해를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처음 제시했다. 이 대표 발언은 김 원내대표 제안 직후에 견지하던 법제화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선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도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조문에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거나 보상 범위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하는 특별법 제정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

원회를 두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영업이익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보상액 산출 방식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요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류된 4건의 법안들 모두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재원 조달책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시행의 관건이다.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영업자 보상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20년형 확정

대법 재상고심, 원심대로 선고
국정농단 사건 4년3개월 만에 종결
사면논란 재점화...靑 "적절치 않아"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 10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공개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 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로 정치권의 사면 논란이 재점화되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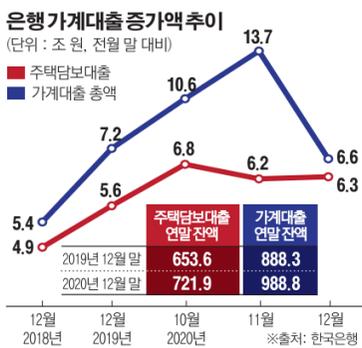
정수천 기자 int1000@

영끌·빚투에...작년 가계빚 '사상 최대' 증가

100.5조 늘어 1000조 육박
'부동산 광풍' 주담대 6.3조 ↑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생활·주택자금, 주식 투자 수요 등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조5000억 원이 급증,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12월 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6000억 원 증가한 988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100조5000억 원 증가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늘었다. 직전 최고치는 2015년 기록한 78조2000억 원 증가였다. 주택자금 수요와 공모주 청약증거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가 맞물렸



증가 규모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2월 2조8000억 원을 기록해 직전 월(2조3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2조4000억 원)보다도 많았다.

한편, 기업대출은 5조6000억 원 감소한 97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2월(-6조2000억 원) 이후 1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택 매매가 늘고 있고, 전세가격도 상승세다. 주택자금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초는 계절적으로 주담대가 늘어나는 달이 아니지만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대출이 늘지는 봐야 하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김남현 금융전문 기자 kimnh21c@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두산, 우발채무 변수 해소... '3兆 자구안' 탄력

매매대금 청구소 상고심 승소

두산그룹이 최대 리스크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FI·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는 FI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에 따라 두산은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을 통해 확보하게 될 현금을 그룹 유동성 확보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은 현재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협상 청신호
이르면 이달 중 현대중과 본계약

FI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땀

DICC 지분 20% 우선매수해야

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매각 금액을 8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패소로 발생하게 될 우발채무 관련 변수가 사라진 만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사는 이르면 이달 내에 본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 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알았던 사안"이라며 "차질 없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일지

| | |
|--------------|-----------------------------------|
| 2011년 | DICC 재무적투자자, 3800억 원 투자 지분 20% 취득 |
| 2014년 | DICC IPO 실패 |
| 2015년 11월 | 재무적투자자, IPO 무산에 투자금 반환 소송 제기 |
| 2017년 1월 | 1심, 두산그룹 승소 판결 |
| 2018년 2월 | 2심, 재무적투자자 승소 판결 |
|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결정 |

니다. FI들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두산으로서는 추가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권리가 행사되면 FI는 DICC 지분 100%를 제3자에 팔 수 있다. 이를 막고자 두산은 계약 당시 확보한 FI의 DICC 지분 20%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DICC가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계열회사인 만큼 두산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FI의 지분을 사야 한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FI가 DICC 지분 20%의 가치를 약 700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협상을 통해 가격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굴착기 판매 대수



은 낮아질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 말 공시에서 "대법원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은 DICC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3조 원 자금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두산그룹은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그룹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두산중공업의 클럽모우CC(1850억 원)를 팔았다. 이후에는 (주)두산의 두산솔루스(6986억 원), 모트콤BG(4530억 원), 네오플렉스(730억 원), 두산타워(8000억 원)를 잇달아 매각했다. 또 오너 일가가 보유한 두산퓨얼셀 무상증여를 통해 600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다가 두산중공업은 작년 말 유상증자를 통해 1조 212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가치주·성장주보다 혁신 보고 투자하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온라인 투자전략 회의'

“투자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투자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을 보는 것이다.”

박현주(사진)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14일 임직원들과 함께 가진 내부 온라인 투자 전략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요 산업 트렌드, 혁신 기업 사례 및 투자 전망,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 등을 활용한 연금 자산 배분 전략 및 박 회장이 바라보는 유망 투자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박 회장은 “올해 증시는 코스피 3000을 넘어서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며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호황 전망 클라우드 시장 年 20% 고성장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투자해야”

“세계적으로도 2021년은 상당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를 토론 첫 화두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삼성전자가 시장 진출을 선언한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심지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각자 칩을 디자인하는



팍리스(반도체 제조공정 중 설계와 개발하는 분야)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본 수요와 파운드리 쪽은 호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만큼 많은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 설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잘되면 자동차 분야도 수요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파운드리가 반도체의 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은 주로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는 업체로부터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노 단위로 진입한 초미세 공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 기업에 외주를 주는 형태가 일반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술을 토대로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그래픽칩셋 제조기업 엔비디아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회장은 “엔비디아를 단순히 게이밍과 연관된 회사라는 건 실수일 수 있는데, AI시대가 전개되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에서 혁신적인 미래 기술 기업이 주목받는 현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예전 가치 중심의 시장에서 혁신이란 항목을 보

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셋은 경쟁력의 관점에서 기업을 본다”며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장기적 관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클라우드 시장은 고성장의 시장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진출한 클라우드 서버 시장은 연평균 20%의 고성장 산업으로 본다”며 “그만큼 장기 트렌드가 좋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증시의 주목을 받는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도 관련 분야의 성장을 점쳤다. 박 회장은 시가총액 800조원까지 성장한 테슬라에 대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망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테슬라의 혁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 KEPCO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 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계류·예정 법안 살펴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일찌감치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최근에는 11일과 12일에 각각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3건의 경우 현행법상 손실보상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종배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개정안에선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업 중단 또는 폐업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혜영 의원의 안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나 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 임대료 등 고정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보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범위를 넓히고, 고정비도 고려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 “코로나前 영업의 차액 보상” 발의 소요액 책정 불가... 法통과 희박 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록 해 보상액을 기운 것이다.

홍석준 의원의 안은 보상액 산출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매출 수준에 준하도록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코로나19 피해 이전 영업이익 수준에 준하는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제11조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간과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뒤 두 기간의 영업이익 차액 내에서 보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나 시·도에 설치되는 손실보상심의위를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위’로 개명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옮겨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에 집중토록 했다. 위원장도 중기부 차관이 직접 맡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추천 손실보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토록 해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요 재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 자영업자 코로나19 보상 계류법안 | |
|--------------------|---|
| 이종배 의원안 |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의료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 보상 |
| 장혜영 의원안 |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로 해 범위를 넓히고, 보상액에 임대료 등 고정비 포함 |
| 홍석준 의원안 |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액 산출 기준에 피해기간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을 고려 |
| 이동주 의원안 | 별도 특별법을 마련해 중기부 차관이 이끄는 손실보상 심의위를 두고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피해기간의 영업이익 차액 범위 내에서 보상액 산출 |
| 강훈식 의원안(예정) |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해 피해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 |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가 향후 얼마나 커질지 짐작하기 어려워진다. 이종배·장혜영 의원안은 비용추계서 미접부 사유서가 제출됐고, 나머지 2건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

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앞선 4건보다 소요 재정을 추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 재정 추계가 가능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

다”며 “그래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불가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히며 “당과 자영업자 보상 유력 방안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문제는 재원 마련

예비비 바닥났는데, 쓸 돈은 ‘수십兆’ 연초부터 추경·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불가피하다. 향후 추가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도 필요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말하는 영업손실 보상제는 실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규모를 계산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이 대표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한 달에 약 110억 유로(약 14조6000억 원)를 지원한다.

역시 문제는 재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감염병예방법 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의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추계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손실 규모 산정이 어렵고 국가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줄어든 영업시간

에 최저임금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연 8조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대기업의 기부를 받는 이익공유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면 향후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뜰이나 복지 확대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증세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 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금금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앞당겨 썼고 백신 추가 구매 등으로 8조6000억 원의 예비비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매달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이어 손실보상 방안까지 나오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 보상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이 세상에 작은 기업도 없다

직원 1명이든 100명이든 기업을 한다는 것은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내세울 만한 실적, 가진 자산이 부족하다 해도
 미래의 가능성을 알아봐 줄 은행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업의 대·중·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
 여기, IBK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소득·재산만 따져 생계비 지원... 2300가구 추가 혜택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어머니 사망, 장애 아들은 거리로=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건이다.

정부 기초수급 자격 탈락해도 부양가족 여부 관계없이 지급 4인 가구 월 최대 73만원 지원 시민단체 "수급자 확대해야"

이들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일정 수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비극을 낳았다. 현행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를 묻는다. 이 때문에 방배동 모자는 주거급여 약 28만 원 이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환영하지만 한계"=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의료·주

| | 현재 | 부양의무자 폐지 후 |
|----------|---|---------------------|
| 소득기준 | ①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① 현행 유지 |
| 재산기준 | ② 1억3500만 원 이하 | ② 현행 유지 |
| 부양의무자 기준 | ③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는 제외) | ③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4만~73만 원을 받는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부양의무제 폐지

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수급자 확대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첫해에 6만 명, 이후에는 10만 명으로 늘리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6000명이 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나 모니터링 강화 등이 연결되면 수급자 확대를 위한 계획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약 23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부양의무

제를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완화하고 있다"며 "이 추세 때문에 수년 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수급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 5400명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시 "복지 선도·견인"=부양의무제 폐지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를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가운데 하나를 수급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모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35배 풀려... 재산권 행사 가능

여의도 면적(2.9km²)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등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약 1014만m²가 해제돼 경기도는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동참모본부 건의,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m²가 대규모로 해제되고,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m²

당정협의 3단계 심의 후 결정 파주 등 접경지역 대거 포함 軍 협의 없어도 개발사업 허가

도 해제된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도 9만7788m²도 해제된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대거 포함돼 전체의 약 10%인 총 1007만3293m²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의 경우,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가 해제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 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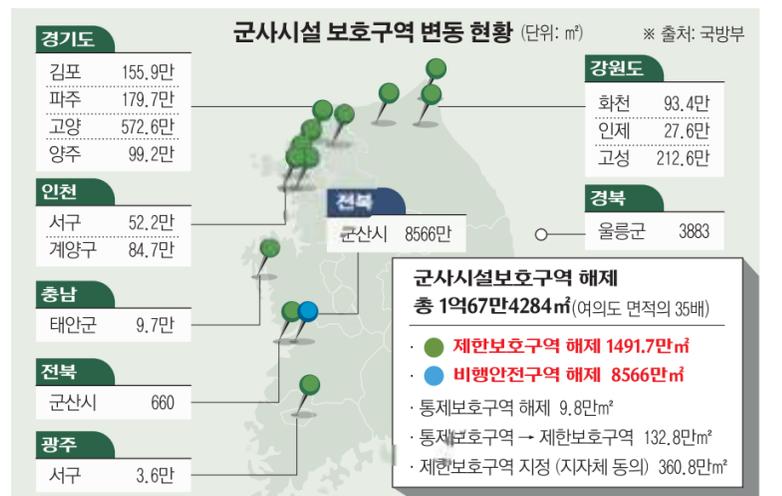
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m²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m²,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82m²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m²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하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m²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개발이 더욱 수월해졌다.

이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



만3685m²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공감잡지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1. 01 VOL.73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탄력적 혁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티투아스트 조영민

책임감 있는 자유 누리는,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겸 작가

'낙숫물이 비워져 구멍을 내듯' 청사진의 삶 살아갈 것
변호사 원영섭

전통 정원의 멋 김주 목화마을 오지 나와 확대하고 싶어 지는 집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도세희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체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재미있는 성 인문학 시사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만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남'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척박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랄까? 하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리태,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며 누렸던 최고의 명동당이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저것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니까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미담입니다.

50+ 워라밸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약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어른 마음대로 정하는 아이 운명... 법부터 바로잡아야

현행 아동 관련 법률 80여 개
관리부처·나이·용어 '제각각'

아동권리 보장 위한 法기반 미약
보호의 대상 넘어 '권리 주체'로
헌법 개정하고 입법 체계화해야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다. 관련



현행 주요 법령상 아동의 범위

| 법명 | 구분 | 연령 | 소관부처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 | 18세 미만인 자 | 여성가족부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 법무부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아동·청소년 | 24세 이하인 사람 | 여성가족부 |
| 모자보건법 | 영유아 |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 보건복지부 |
| 소년법 | 소년 | 19세 미만인 자 | 법무부 |
| 아동복지법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 보건복지부 |
|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 | 만 12세 이하 아동 | 여성가족부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 보건복지부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 법무부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보건복지부 |
| 입양특례법 |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 보건복지부 |
| 유아교육법 |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교육부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된 법령들도 통합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

고 교수는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들어가면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이나 법률, 제도가 마련된다"며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선 아동 권리를 명문화해 아동 관련 입법을 체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양 현장에서도 의사 표시를 못하는 아기들의 운명을 어른들이 결정하는 아동권 상실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입양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한 J(50대)씨는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정인 양의 메시지를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J씨는 영유아를 위탁도, 입양 가정으로 보내면서 수많은 미혼부모와 상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이가 어떤 가정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입양될지 살펴보고 또 살펴봤다. 이때마다 J씨가 답답함을 느꼈던 점은 '상담의 주체'가 아이들이 아닌 사

실이였다.

J씨는 "내담자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의 미래가 부모의 선택이나 입양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말할 수 없는 영아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것은 어른들"이라며 "아기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인 양 사건 역시 당사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J씨는 "아기의 몸에 드러난 상처처럼 객관적인 증거, 아기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무시된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처리했다. 개정 아동학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시설 확대가 기존 법에 이미 명시됐으나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승백 유승백 변호사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면서 "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겠지만, 사회적으로 전담수사 인력, 물적 시스템, 분리했을 때 처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소희 기자 ksh@

“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일... 입양가정 ‘학대 낙인’ 안돼”

인터뷰

‘입양 아버지’ 이종락 목사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 운영... 1830명 영아 버려질 위기서 구해
정인이 친모 출생신고 마치고 이름도 지어줘, 키울 형편 안됐을 것
생명 살리려면 선지원 필요... 신원 노출 없이 아이 낳을 수 있어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 양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목사는 정인 양이 출생신고가 된, 친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 영아인 상태로 위탁 모에게 맡겨진 사실에 주목하며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사실은 키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현실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홀로 키우기 쉽지 않은 나라이잖아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시설에 맡기는 엄마들의 마음은 10대건 20대건 30대건 똑같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언제가 다시 찾을 테니 건강하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 목사는 2009년부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의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목사는 9명의 아이를 입양했다. 후견인을 맡는 아이까지 더하면 16명의 아이를 받아들인 '입양 아버지'다.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의 수만 1830명에 달한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미혼 부모의 손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정인 양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가 13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마련된 베이비박스 안을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목사는 출생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생신고는 버려진 아이가 입양기관에 맡겨져 위탁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기를 맡기고 가는 엄마, 아빠들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해달라고요. 현재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분만한 엄마들의 경우 출생신고가 더욱 어렵습니다. 예전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법원에 가서 검사하고 재판받아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죠. 신원

이 밝혀질까 봐 두려우니까요. 그렇게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가 해야 하는, 당연한 가족관계등록 절차로 보이는 출생신고도 친부모의 손을 떠난 아기들 예전 꿈 같은 이야기였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은 위탁모를 통한 입양처로 보내질 수 없다. 대신 보육시설로 보내진다. 2012년 입양특례법의 영향으로 생부모의 입양신청과 양부모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출생신고가 입양의 조건으로 의무화되면서다. 보육원에 간 이

후엔 6개월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다. 친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에게 놓인 선택지는 이 두 가지뿐이다.

“입양 특례법은 출생신고를 의무로 하기 때문에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법 때문에 많은 아이가 죽고 수많은 미혼모가 삶을 포기했습니다. 법이 어리니 모두를 지키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처음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기를 맡기는 부모를 만날 때면 출생신고를 꼭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했다. 생명을 살리려면 '선지원 후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설명 출산이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우선적으로 낳을 수 있게 돕고, 이후 국가가 영아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비밀(익명)출산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랑출산법'과 통하는 부분이다.

“부모가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겠어요. 실명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산모가 신분 노출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 아닐까요? 일단 살리고 봐야죠.”

김소희 기자 ksh@

“학대의심 신고 즉시 부모와 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

보호기관·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적극 개입해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 신고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분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해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4일 "1회 신고 시 즉각 부모로부터 분리한 후 아이에 대해 엑스레이를 포함해 건강검진, 발달 검사는 필수"라며 "부모의 변명보다 아이의 몸이 말하는 학대신호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를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분리 조치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가져기 떠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쉼터에 못 가는 아이들은 보육원에

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원도 자리가 없으면 가출청소년이 모여 있는 시설에 간다"며 "이는 학대 상처 치유가 시급한 아이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기계적 분리는 답이 아니다"며 "즉시 분리가 아닌 '즉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관리 대책도 숙제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 아동을 가정에서 적시에 분리한 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낯선 곳에 가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대로 상처가 될 수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

는 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구조의 아동학대 대응기관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경우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전문보호기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조사 단계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안철수 “입당 거부”에 고민 깊어진 김종인

서울시장 야권 후보 대거 출마 선언... 金, 후보 낙점 못해 양측, 협력 앞서 줄다리기... 金, 인물 대신 정책 어필 나서

4·7 재보궐선거 야권 후보가 10명 가까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택한 원픽(One Pick)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선거’를 위한 ‘원트(want)’와 ‘니즈(needs)’ 직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원하는 건 우선 안

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이다. 겉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직접 안 대표를 만나 입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 대 당 통합설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입당은 괜찮다는 것이다. 또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안 대표에 입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격노한 것 역시 입당 자체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닌데 그런 제안을 했다는 점이 화가

났던 것뿐이다.

반면 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제안을 현재로선 거부하고 있다. 안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소속 정당을,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것이라면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김-안’ 양측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서로 힘을 합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조직력, 의식은 있지만 인물이 없는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라면서 “양측 모두 상대

의 도움 없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초 김 위원장이 원하는 후보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만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소통·공감 능력 △젊음 △비즈니스 감각까지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팔방미인’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책’ 어필에도 나섰다. 인물에만 초점을 두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

보궐선거 이후 물러날 예정인 김 위원장은 ‘무조건 이기는 선거’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 그만큼 고민, 결립들도 많다. 박 평론가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 체제 7개월간 당 내부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 하나만 들지 못한 점, 안 대표를 위한 경선론 변경에 따른 당내 후보 관심도 저하, 안 대표 입당을 원하면서도 그에 대한 불신도 있어 복잡해지는 셈법 등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n@



안 “5년간 주택 74만가구 공급”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양대 축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달린다

정부, 1.1兆 투입... 차량융합 등 5대 분야 중점 추진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2027년까지 1조 974억 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우선 올해 85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핵심 인지센서 모듈 기술 개발 등 신규과제 53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5일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 53개를 공고한다.

△차량융합 신기술 분야(산업부), ICT융합 신기술(과기부),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국토부·경찰청), 자율주행 서비스(국토부·경찰청), 자율주행 생태계(공통) 등 5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을 위해 핵심 인지센서 모듈, AI기반 고성능 컴퓨팅기술, 자율주행차 플랫폼 등 15개 과제(182억원)에 착수한다.

ICT융합 신기술 개발을 위해선 자

율주행 인지·판단·제어 AI SW기술,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기술 등 13개 과제(210억원)를 수행한다.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엔 202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도로·교통 인프라 융합 플랫폼, 도로상황 인지 고도화 기술 등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창출에는 83억 원을 들여 교통약자 지원, 수요대응 대중교통,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지원 등 3개 과제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표준, 안전성 평가기술 등 생태계 구축 등 11개 과제(174억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완전 자율 단계인 레벨4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화와 경제성에 대한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높이고 수행기관의 사업화 이력 제출도 의무화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당정 “9월까지 백신 접종 완료... 11월 집단면역 목표”

‘국난극복 K-뉴딜위 점검회의’ 방역조치 결정, 중대본에 일임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동절기 전인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K-뉴딜위원장)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일정이지만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가,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갈 수 있을까’하는

국민의 소박한 염망이 있다”고 말했다. 치료제에 대해선 “(백신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료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도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접종 순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 방역조치 결정은 방역당국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맡기기로 했다.

중대본은 16일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의 방역조치 개선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5단계)를 유지하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확진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으나 최근

1주간(8~14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554.3명으로 여전히 2.5단계 기준(400~500명)을 웃돌고 있어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에 무게가 쏠린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잘 준수해준 덕에 감소세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감소 속도는 느린 상황”이라며 “인심해서 모임과 이동을 늘렸다가는 위험한 상황으로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은 28명이다. 12시(정오) 기준으로 경기 고양시 특수학교(총 10명), 광주 서구 병원(총 12명)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누적 사망자는 1195명으로 전날보다 10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돼지열병 남하 조짐... 양양·영월서 감염

광역울타리 밖인 강원도 양양과 영월에서도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하는 등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국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현재까지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감염이 모두 94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존 집중 발생지역인 강원 영서 북부 지역 외에서도 확인된 것.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도 최근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했다. 영동지역은 경상도와 인접해 있어 질병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대다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쉽고, 아직 농장의 방역 여건이 취약한 데다

봄철 번식기가 되면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막고 양돈농장을 차단방역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보강하고, 멧돼지 개체 수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9개 시·군에서 제한적으로 총기포획을 시행하고, 수색인력 107명을 투입해 폐사체를 수색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가스공, LNG냉열 활성화 사업 박차

인천신항에 콜드체인 구축 물류·데이터센터 활용 가능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사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14일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LNG냉열을 활용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냉동창고를 인천신항 바로 옆에 구축해 신선 물류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준공되면 약 1조2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스공사는 기대한다.

이처럼 가스공사가 LNG냉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LNG냉열이 가진 사업성 때문이다. LNG냉열은 LNG를 -162°C에서 0°C로 기화 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를 말한다. LNG를 기화시킬 때 1kg당 약 200kcal의 냉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LNG냉열 사업의 핵심이다. 그동안 냉열에너지는 바다나 공기 중으로 버려지는 에너지였지만 현재 친환경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LNG냉열은 냉동 물류사업에 효과적이다. 기존 전기냉동기로부터 -100°C 저온을 얻는 냉동기기를 LNG냉열로 대체

활용할 경우 -100°C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소요에너지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존 대비 전기 사용량이 50~70% 감축된다. 급속 냉동 효과도 크다.

현재 평택 오성물류단지 냉동냉장 물류센터가 급속냉동, 저온보관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LNG냉열을 활용하는 데 있다.

LNG냉열은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전력이 냉각시스템 가동에 쓰이고 있는데 이를 LNG냉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자로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LNG냉열 에너지가 ‘에너지의 재활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연간 3300만 톤에 달하는 LNG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총 5개의 LNG터미널, 72기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가스공사로서는 LNG냉열 핵심 사업자로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냉열과 연관된 융·복합 모델로 사업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부산신항, 중소기업 공동물류, 데이터센터 등 LNG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냉열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인생에 든든한 보험이 필요한 순간마다 늘 당신 곁을 지켜온 한화생명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의 활기찬 인생이 이어지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까지 부담없이
LIFEPLUS 어른이보험(무)



치아관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한화생명 스마일 치아보험(갱신형)(무)



중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무)



가입 문턱은 낮추고 가입 한도는 확대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치매보험(무)



FINISH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치매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美 역사상 첫 '더블 탄핵' 불명예

내란선동 혐의 하원서 탄핵 가결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표 던져 퇴임 전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아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안이 두 번 가결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은 22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전체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반란표를 던졌다. 앞서 존 컣코(뉴욕)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디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다. 공화당 지도부도 반대 표결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이탈 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백악관 트위터 계정에 올린 5분짜리 동영상 메시지에서 6일 일어났던 의회의 사당 난입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어떤 불법과 폭력, 반달리즘도 없어야 한다"며 "화를 낮추고 평화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권력 이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을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무대는 상원 탄핵재판이다.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등 공적 진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연금과 기타 혜택도 모두 박탈된다. 탄핵과는 별개로 의사당 난입 관련 폭력 행위를 유발한 혐의로 형사와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트럼프 탄핵' 절차

- 1월 11일 (미국시간)** 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발의
-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통과 (멘스, 트럼프 직무박탈 거부 표명)
- 13일**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435석 중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과반 통과
-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상원으로 송부
- 빠른 시일 내 (20일경에야 논의 가능)** 상원, 탄핵소추안 심리 (바이든 취임 전 결론 불가 예상)
- 바이든 취임 전 물리적 불가 (시기 예측 불가)** 상원, 탄핵소추안 표결 (민주 50석·공화 50석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 찬성시)
- 추후** 트럼프 공직 출마권 영구 박탈안 상원 추가 표결 가능

를 유발한 혐의로 형사와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탄핵안이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전체 100석의 3분의 2 이상(67석) 찬성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17명의 반란 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상원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적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침묵하던 공화당 '인자' 미치 매키널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전 탄핵 결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키널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20일 이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상원 표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 정국 속에서 취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뜰이나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 회복, 대중국 관계, 이란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의원들, 방위군에 '피자 배달' 미국 공화당 소속 비키 하츨리(왼쪽·미주리주)와 마이클 왈츠(오른쪽·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이 13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을 경비 중인 주방위군 병사들에게 피자를 나눠 주고 있다. 현재 워싱턴D.C.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내주 출범 바이든號 '1400兆+α' 빅머니 펀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경기부양책 제안... "1인당 2000달러 지급" 정책 발표 예정

다음 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권이 대형 추가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1조3000억 달러(1432조 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다음 날 있을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에 앞서 이뤄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오후 7시 15분(한국시간 15일 오전 9시 15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및 경제 재건 입법 패키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일 취임에 앞서 바이든 차기 정부가 공개하는 첫 정책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가을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책정하고

법을 추진했는데, 최근 통과된 부양책 규모는 9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무려 1조3000억 달러의 차이를 보인 탓에 당내에서는 정권 교체 후 추진하게 될 추가 부양책 규모에 대해 꾸준히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관계자는 "발표될 부양책에 놀라울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통과된 9000억 달러 규모 법안에 이어 지난 몇 주간 민주당이 압박하던 조건들이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자금 지원과 실업수당 추가 지원, 1인당 지원금의 상향(600달러→2000달러) 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고용시장 회복은 정체돼 있어 새 대책이 절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지난달 총 1억4262만 명으로, 1년 전의 1억5200

만 명에서 감소하고 2015년 말 수준에서 회복이 멈췄다.

차기 행정부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면서 이른바 '트리플 블루(대통령, 상·하원 장악)'를 실현한 만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일방적인 추진보다 공화당과의 협의를 통한 초당파적인 합의를 선호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이를 전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1인당 지원금을 2000달러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화당 일각에서 호응하는 움직임도 있다. 루비오 의원은 "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지원금 상향은 미국 국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폭스바겐 '자동차 왕좌' 도요타에 내줬다

유럽시장 악화로 판매 15.2% 감소... 전기차는 호조 '희망'

독일 폭스바겐이 5년 만에 세계 1위 자동차 업체 왕좌를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내주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폭스바겐의 지난해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5% 급감하면서, 도요타의 판매량을 밀리게 된 탓이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지사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전날 산하 브랜드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2020년 세계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930만 5400대였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2019년까지 4년 연속 세계 판매량 1위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본격적인 유럽 시장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침체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폭스바겐과 세계 판매 선두자리를 다투는 일본 도요타와 르노-닛산-미쓰비시 동맹은 아직 작년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요타는 이미 작년 11월까지의 누적 판매 대수만으로도 폭스바겐의 연간 판매량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는 지분법 적용 대상인 스바루를 포함

해 지난해 1~11월 932만 대를 판매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 선두 자리는 도요타가 사실상 탈환하게 됐다.

물론 5년 연속 판매 대수 1위는 놓쳤지만, 폭스바겐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폭스바겐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23만 대를 기록, 전년보다 3.1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출고를 시작한 첫 번째 순수 전기차 'ID.3'가 5만6500대 팔려 나갔고, 폭스바겐 산하 독일 아우디의 'e-트론'의 판매도 호조세를 띠었다.

다만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애초 목표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 폭스바겐은 2019년 1%에 불과했던 전기차 비중을 지난해 4%로, 2025년에는 20%로 가파르게 높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차 비중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2.5%에 그쳤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배인 19만 대로 집계됐다. 변효선 기자 hsyun@

몰락하는 인텔 'CEO 교체' 승부수

밥 스완 퇴진... 'VM웨어 주역' 팻 겔싱어 12년 만에 복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1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다. 최근 들어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인텔은 인사를 통해 반전을 꾀한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인텔은 2월 15일자로 밥 스완 현 CEO가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팻 겔싱어(사진) VM웨어 CEO가 온다고 밝혔다. 겔싱어 차기 CEO는 과거 인텔에 엔지니어로 입사해 30여 년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최고기술책임자(CTO)까지 맡았던 그는 2009년 회사를 떠났고, 12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반면 스완 CEO는 지난해 1월 취임 후 1년 만에 교체되는 굴욕을 맞았다.

해당 소식에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97% 급등한 56.95달러에 마감했지만, VM웨어 주가는 6.79% 급락하는 등 시장은 인텔의 선택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완 체제에서 인텔은 시장 점유율을 경쟁 업체에 뺏기고 생산마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애플이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 칩 'M1'이 탑재된 신제품을 공개하는 등 인텔 의존 낮추기에 돌입하면서 더 입지가 좁아졌다.

특히 이번 인사는 최근 행동주의 투자자인 대니얼 루프 서드포인트 CEO가 인텔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전략적 대안 모색을 촉구한 뒤 일어난 주목받고 있다. 이번 CEO 교체에 루프는 "스완이 겔싱어를 위해 한발 물러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

현재 인텔의 가장 큰 문제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경쟁사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텔은 최근 몇 년간 14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칩에서 10나노 칩으로 공정을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지난해 7월엔 7나노 칩 출시마저 지연되며 생산 전반에 차질을 빚었다. 이 기간 삼성과 TSMC는 더 작고 강력한 칩을 생산하며 능력을 과시했다.

그밖에 인텔은 엔비디아에 시가총액 기준 미국 1위 반도체 업체라는 타이틀을 내줬다. 인텔과 격차가 벌어져 있던 AMD 역시 TSMC와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인텔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반면, 겔싱어 차기 CEO는 VM웨어에서 엄청난 성장을 주도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VM웨어는 매출 108억 달러(약 12조 원)를 기록했는데, 이는 겔싱어가 CEO로 취임하던 2012년(46억 달러) 성적의 두 배가 넘는 성장이다. VM웨어와 인텔 모두 반도체 생산 혁신을 회사 성장의 핵심으로 여기는 만큼, 시장에서 겔싱어의 영입을 통한 인텔의 입지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에도... 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금융 인사이드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삼성생명 압 보험 분쟁을 전담한 생명보험검사국 검사 1팀장이 특별포상을 수상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이끈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윤석헌 원장은 강공을 택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2021 온라인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우수 부서 상 수상과 최우수 직원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다.

이중 삼성생명 담당인 생명보험검사국 1팀장은 특별포상을 받았다. 해당 팀장은

삼성생명 압보험금 미지급 분쟁 금융위 최종 결정 안 내렸지만 중징계 이끈 담당자에 특별포상 '팀장→국장' 승진 내부 전망도

이번 인사에서 직상장할 거냐 내부 전망도 흘러나온다. 직상장은 현 소속부서에서 바로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국 팀장에서 바로 국장이 되는 케이스는 드물다"며 "보통 다른 부서 실장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내부에서는 삼성생명 제재심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



자는 "윤석헌 원장이 삼성생명 제재심 결과를 워낙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임직원에 대

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의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은 지난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금감원 중징계의 핵심 근거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압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500건 이상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지, 금감원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라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공동대표인 이 모 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 모 씨 소송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모 씨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의견서가 있는 만큼 다른 분쟁 사례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같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란의 여자와 금융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윤 원장은 자신의 뜻을 뚜렷이 표출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윤 원장이 이러한 상황에도 상을 주고 격려한 건 여러 논란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행정소송 절차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올해 인터넷銀 3파전... '시중銀과 달라야 산다'

하반기 토스뱅크 영업 스타트

ATM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등 케뱅·카뱅, 차별화 전략 박차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3파전 구도가 형성된다. 기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성장세를 지속할 방침이다. 행장이 공식 상태인 케이뱅크는 이번 주 중 차기 행장을 내정, 경영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번 주 안에 후임 행장을 내정한다.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이문환 행장이 사임하면서 경영공백이 우려되고 있지만, 후임 행장 인선에 속도를 높여 리스크를 최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 회사 | 가입자 수 (명) | 1월 금용위원회 본인가 신청, 7월 영업 시작 |
|-----------|-----------|---------------------------|
| kakaobank | 1360만 | 2조9900억 |
| K bank | 220만 | 3조7500억 |
| toss | 1월 | 859억 |
| | | -703억 |

* 순이익은 2020년 기준

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행장 선임에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개업휴업 케이뱅크, 영업재개 박차〉 3년 가까이 '개점휴업'을 했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영업재개에 나선 이후 지난해 12월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영

업재개 5개월 만에 6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월 평균 13만 명의 가입자를 새롭게 유치한 셈이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가입 고객이 15만 명(월 평균 2만5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영업재개 이후 월평균 고객은 약 5.2배 성장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분기 406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전년도 순이익(154억원)의 2.6배 기록 순항.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해 더욱 몸집을 키울 예정이다. 올 하반기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 본인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본격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 같은 차별

화 전략을 앞세워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TM 수수료 무료정책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올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간다. 케이뱅크는 최근 ATM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전국 GS25 편의점과 전국 모든 은행의 ATM 기기 사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출금·입금·이체 등 모든 ATM 거래가 해당된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말까지였던 ATM 수수료 무료 이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때부터 계속 ATM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간 누적 비용은 총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약 600억 원이 ATM 이용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 전년(431억 원)보다 약 40% 증가한 규모다.

김범근 기자 nova@

기업銀, 女부행장 1명 추가 발탁

IBK기업은행은 여성 부행장 1명을 추가로 발탁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2021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김은희(사진) 강동지역본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박주용 IBK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본부장급)은 CIB그룹장, 전병성 경동·강원지역본부장은 디지털그룹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5일부터다.

김은희 신임 부행장은 고객관리와 자산관리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김은희 부행장 선임으로 2명의 여성 부행장을 두게 됐다.

문수빈 기자 bean@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Application Processor>

삼성 갤럭시S21 '1억 화소' 카메라에 '5나노 AP' 초격차

S시리즈 최초 S펜 지원
99만~159만원 선택 폭 넓어
15일부터 사전예약, 29일 출시
울트라 모델, 역대 최고 성능
애플 '아이폰12' 대항마 주목



왼쪽부터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 S21+, S21.

삼성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 3종이 공개됐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의 최신 5nm(나노미터=1억분의 1m)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갤럭시S21 울트라'는 갤럭시S시리즈 최초로 S펜을 지원한다. S펜은 갤럭시 노트처럼 기기에 장착되는 형태는 아니며, 별도 커버 액세서리로 제공된다.

5G 플래그십 제품 사상 처음으로 '갤럭시S21' 가격이 100만 원 아래로 책정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15일(한국시간) 온라인을 통해 '삼성 갤럭시 언팩(신제품 공개) 2021'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선보였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총 3종으로, 각각 6.2형, 6.7형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S21'과 '갤럭시S21 플러스', 6.8형의 '갤럭시S21 울트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매년 2월 갤럭시S 시리즈를 공개하고, 3월에 출시해온 것과 달리 갤럭시S21을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공개했다. 이번 갤럭시S21은 전작 갤럭시S20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 아이폰12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과감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눈에 띈다. 스마트폰 보디와 메탈 프레임, 후면 카메라가 매끄럽게 이어져 일체감을 주는 '컨투어컷' 디자인을 채택했다. 또 지문인식을 최소화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팬텀 바이올렛(Phantom Violet) 등 다

양한 색상으로 출시된다.

디스플레이는 콘텐츠에 따라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자동으로 조정해준다. 이를 통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스크롤과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시리즈의 두뇌인 모바일AP는 최근 발표된 '엑시노스 2100'과 퀄컴의 신제품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됐다. 두 제품 모두 5nm 공정의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향상됐다. 고화질의 8K 동영상을 촬영한 후 캡처를 통해 3300만 화소의 선명한 사진을 기록할 수 있다.

새로운 '디렉터스 뷰(Director's View)'는 동영상 촬영의 활용도와 재미를 높였다. 전·후면 카메라를 모두 활용해 동시 촬영이 가능하고, 망원·광각·초광각 카메라의 다양한 앵글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줌 기능도 개선됐다. '갤럭시 S21'·'갤럭시S21 플러스'는 최대 30배까지 선명하게 줌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20배 줌부터 자동으로 흔들림을 잡아주는 '줌 록(Zoom Lock)' 기능이 지원된다. 특히 '갤럭시S21 울트라'는 스마트폰 중 가장 고해상도의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디지털 줌으로는 최대 100배까지 촬영할 수

있다. '갤럭시S21 울트라'의 또 다른 특징은 'S펜' 기능 지원이다. 그리기부터 노트 필기 등 S펜의 경험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이 포함된 2종의 새로운 커버 액세서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Galaxy Buds Pro)'도 공개했다. 진화한 인텔리전트 ANC(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를 탑재했고,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 케이스를 통해 추가 충전 시 최대 18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오는 29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국내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갤럭시S21'과 '갤럭시S21 플러스'는 8GB RAM, 256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99만9900원, 119만9000원이다. '갤럭시S21 울트라'는 12GB RAM, 256GB 내장 메모리 모델과 16GB RAM, 512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45만2000원, 159만9400원이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전자 갤럭시 S21울트라(왼쪽)와 S21.



현대차, 코나 2.0 가솔린 출시...공영주차료 반값

1962만원부터...저공해차 충족

현대자동차가 14일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사진)을 라인업에 추가하고 판매에 나섰다. 작년 10월 가솔린 △1.6 터보 모델과 △1.6 하이브리드 △N 라인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맞물렸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149마력(ps)의 동력성능 및 리터당 13.6

km의 복합연비를 기록한다. 여유 있는 배기량을 앞세워 부드러운 주행감을 완성해낸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스마트 1962만 원 △모던 2175만 원 △인스퍼레이션 2648만 원이다.

더 뉴 코나 2.0 가솔린 모델은 저공해차 동차 제3종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 요금 50%(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영주차장 요금 20% 감면 등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코 수출 선박에 중소 고객사 화물 함께 선적

'합적배선 시스템' 이달 중 가동
운송비 줄이고 선박 확보 지원

포스코가 수출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고객사 지원에 나섰다.

14일 포스코는 고객사 소량 화물도 포스코 물량에 함께 선적할 수 있도록 '합적배선 시스템'을 개발, 이달 중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중소 고객사들이 수출 물량이 적어 선박의 적기 확보가 쉽지 않아 납기준수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내야 할 때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년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합적배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고객사가 직접은

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합적 가능한 선박 조회부터 신청까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 고객사가 합적하기 위해 대형 화주나 선사에게 수시로 선적 일정을 확인하고 부탁해야 했다.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합적배선 시스템을 통해 42개 중소 고객사들이 5만6000톤을 합적했고 총 11억 원가량의 물류비가 절감됐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합적배선 시스템은 중소 고객사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선사 등 물류 밸류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선사는 추가 물량 유치로 매출이 증대되고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타 부두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운송 비용이 절감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에너지, 佛 토탈과 美 태양광 합작사 세운다

태양광 개발·운영 자본력 강화

한화에너지가 글로벌 대형 석유 기업인 프랑스 토탈과 함께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공략한다. 선제적으로 구축한 사업 역량과 글로벌 기업의 자본력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한화에너지는 프랑스 토탈과 합작회사(JV)를 설립해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토탈은 2025년까지 35GW(기가 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화에너지에 이번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단체협약 체결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14일 아산1캠퍼스에서 김범동 인사팀장(부사장)과 김정란·이창완 노조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중근 인사 담당 상무, 김정란 노조 위원장, 김범동 인사팀장, 이창완 노조 위원장. 사진제공 삼성디스플레이

특히 토탈은 한화에너지의 미국 내 100% 자회사인 '174파워글로벌(Power Global)'의 태양광 사업 실적과 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한화에너지와의 JV를 통해 174파워글로벌이 보유한 사업권(Pipeline)에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한화에너지는 174파워글로벌이 보유한 태양광발전 사업권(총 PV 10GW, ESS 10GWh) 중 일부(PV 1.6GW, ESS 720MWh)에 대해 토탈과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만들게 되는 합작회사를 통해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6개 주에 설치되는 12곳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내 30만 가구 이상에 연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PV는 태양광, ESS는 에

너지저장시스템을 의미한다.

한화에너지는 174파워글로벌을 비롯해 텍사스에서 전력리테일 사업을 영위하는 '체리엇(chariot)에너지'와 뉴욕에서 상업·산업용(C&I) 태양광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174파워글로벌 노스이스트(Northeast)'를 통해 미국에서 태양광발전소의 개발, 건설, 운영에 있어 풍부한 실적과 엔지니어링 역량, 대규모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한화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사업을 추가로 합작회사에 이전해 토탈과의 공동 개발사업을 확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SK하이닉스, 1.1조 그린본드 발행...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글로벌 메모리 기업 최초

SK하이닉스는 14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가속화를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10억 달러(약 1조975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Green Bond)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린본드는 환경친화적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그린본드를 발행한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최근 세계 유수 기업들은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애플, TSMC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고 ESG 채권발행을 진행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말 SK 주요 관계사들과 함께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동참했다.

이번 그린본드에는 전 세계 230여 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54억 달러의 주문이 몰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애초 5억 달러 수준으로 계획했던 발행 규모를 10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

SK하이닉스는 그린본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수질 관리, 에너지 효율화, 오염 방지, 생태환경 복원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물 관리를 위해 신규 최첨단 폐수 처리장 건설과 용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IT 산업 전반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저전력 SSD(낸드 기반 저장장치) 개발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저전력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로 대체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3% 이상 줄일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i1228@

하나금융그룹

고배당주를 대표하는 금융주와 **K-뉴딜!**

랩 하나로

충분하다



한국판 뉴딜, 가까운 미래에 투자하라!

하나뉴딜금융테크랩 V3

*한국판 뉴딜이란?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 일자리 190만개 창출
- 뉴딜정책에 따른 중장기시장의 메인 테마인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에 투자 (5G,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투자포인트 성장주와 배당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 금융주」와 「한국판 뉴딜 수혜주」를 조합한 **중장기 수익 추구**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0.7%, 후취 연 1.0% • 기본형 : 후취 연 1.2%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어카운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랩어카운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 실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4956호(2020.10.23~2021.10.22), cc브랜드201021-0162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O N T A C T

Online No china Tech AI Car Take care

온택트로 기억될 CES 2021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이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일 폐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빠르게 진보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상 첫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CES는 '온택트(ONTACT)'로 귀결된다. △온라인(Online) △중국의 참여 저조(No china) △첨단기술(Technology)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Car) △헬스케어(Take care of oneself) 등이 주요 특징이었다.

◇Online = 올해 CES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행사 규모나 활기가 예년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가기업 수가 예년보다 급감했다. 지난해 4400여 개에 달했던 참가 기업 수는 올해 행사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1961곳으로 반 토막 났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는 온라인 컨퍼런스와 전시관을 마련하며 위축된 CES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썼지만, 한계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편한 장소에서 PC로 오롯이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지만, 현장감이나 제품을 실물로 볼 때의 웅장함은 느끼기 어려웠다"라며 "전시관 위주가 아닌 컨퍼런스 기조연설 위주였던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No China = 올해 CES는 중국 기업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참여기업 수는 미국이 56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340개 기업이 참여한 우리나라가 두 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참여기업은 205개로 지난해(1368개) 대비 85% 감소했다.

중국의 대표 전자업체인 화웨이에는 미국의 제재 등에 영향을 받은 탓에 불참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이 마무리됐다. '온택트'로 열린 이번 CES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5G, 스마트폰, AI,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빠르게 진보하는 첨단 제품과 기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참가 기업 1961곳으로 반토막 온라인 전시관 현장감 부족해 '컨퍼런스' 연설 위주도 아쉬움

지난해에도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중국 유력 업체들이 대거 불참한 바 있다.

◇Technology = CES에서는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로봇,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일보한 기술들이 공개됐다.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은 5G가 현실화된 사례로 NFL(미국프로풋볼)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버라이즌 5G 슈퍼스타디움 익스피리언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최대 7개의 다른 카메라 앵글로 포착한 NFL 경기 장면을 실시간 중계한다.

LG전자는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

롤러블 스마트폰 'LG 롤러블' 티저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집사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선보였다. 이 로봇은 스스로 물체의 위치나 형태 등을 인식해 잡거나 옮길 수 있다. 또 식사 전 테이블 세팅과 식사 후 식기 정리 등 다양한 집안일을 돕는다.

CES의 하이라이트인 TV 경쟁도 뜨거웠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전략 신제품으로 출시한 미니 LED(발광다이오드) TV가 큰 관심을 모았다. 미니 LED TV는 지난해 중국 업체들이 먼저 선보이긴 했으나, 기술력이 앞선 삼성과 LG가 뛰어넘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소니는 크리스탈 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였고, 중국 TCL은 진화한 초슬림 미니 LED TV를 내놨다. 하이센스는 레이저 광원을 사용해 화면에 영상을 반사하

삼성·LG, 가전·AI·로봇 선도 GM, 배송용 전기트럭 사업 공개 첨단 마스크 등 '헬스케어' 붐몰

는 레이저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AI = 최근 CES에서 떠오른 인공지능(AI)은 올해도 화두였다. LG전자는 가상인간 '김래아'를,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네온'의 더 발전된 모습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또 TV, 냉장고, 정수기, 청소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에 AI가 접목된 새로운 일상을 보여줬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로봇청소기 '제트봇 AI'를 소개했다. 이 제품은 딥러닝 기반의 사물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라이다(LiDAR

) 센서와 3D 센서를 탑재해 자율 주행 능력이 대폭 개선됐다.

◇Car = 모빌리티는 CES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GM은 배송용 전기트럭 사업 개시를 알렸고, 인텔 자회사 모빌 아이는 내년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AI와 IoT(사물인터넷)가 결합한 AIoT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기업 비전을 내세웠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대형 전기 세단 EQS에 탑재될 MBUX 하이퍼스크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BMW는 플래그십 순수 전기차인 iX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여기에 탑재될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운영체제 'BMW iDrive'를 선보였다. 아우디는 순수 전기차 라인업의 첫 그란 투리스모 모델인 e-트론 GT 콘셉트를 소개했다.

◇Take care of oneself = '디지털 헬스'는 이번 CES의 새로운 단면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생과 바이러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이 소개됐다. 올해 참가한 기업 가운데 약 29%에 달하는 기업들이 디지털헬스와 웰니스(웰빙과 건강의 합성어) 업체였다.

영국 IT업체 비나톤은 마스크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단 '마스크폰' 제품을 선보였고,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 바이오인텔리센스는 호흡과 심장박동 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인 '바이오버튼'을 내놨다. 국내 기업인 엠투에스는 VR(가상현실)를 이용해 눈의 상태를 측정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은 CES에 등장한 헬스 스타트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팬데믹 이후 디지털 헬스 플랫폼 방문자가 1000%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병원 방문 환자는 60% 감소했다. 헬스케어 산업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권태성 기자 tskwon@



CES 2021 최고상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들. 1. 베스트 커넥티드 홈 제품 '삼성 제트봇 90 AI+'. 2. 베스트 스포츠 테크 '삼성 스마트 트레이너'. 3. 베스트 지속 가능한 제품 '삼성 태양전지 리모컨'. 4. 베스트 TV 'LG 올레드 TV'. 사진제공 각사

삼성·LG, 마지막까지 '최고상' 휩쓸어... 16개 부문 중 5개 선정

한국 IT산업 양대 축인 삼성·LG전자가 혁신상에 이어 CES 2021 최고상(The 2021 Best of CES Awards) 시상식에서도 약진하며 폐막일까지 한국 기업 위상을 재차 입증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1 공식 어워드 파트너인 엔가젯(Engadget)은 13일 오후(현지시간) CES 2021 최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시상식에서 삼성전자가 3개, LG전자가 2개 제품이 수상했다. 총 수상작 16개 중 3분의 1에 가까운 제품이 한국 기업에서 배출된 것이다.

삼성전자 수상 제품은 △제트봇 90 AI + △삼성 스마트 트레이너 △태양전지 리모컨이다. 제트봇 90 AI+는 '베스트 커넥티드 홈 제품'으로 선정됐다. 엔가젯 측은

삼성, 머신러닝 로봇청소기 홈트 돕는 스마트 트레이너 친환경 태양광 리모컨 뽑혀 'LG 올레드' 7년 연속 수상 '롤러블' 폰 기술 구현 인정 韓기업, 혁신상의 26% 차지

"많은 로봇청소기 제품들이 있지만, 삼성 제트봇90 AI+는 센서와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특별해졌다"라며 "이는 라이다(LiDAR) 센서와 머신러닝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효용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준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삼성 스마트 트레이너는 '베스트 스포츠 테크 제품'으로 뽑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기술이라는 평이 나왔다.

태양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리모컨은 '베스트 지속가능한 제품' 부문에서 수상했다. 닉 서머스 엔가젯 수석편집자는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다른 주요 TV 제조사들도 이러한 환경보호책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LG전자는 올레드 TV(C1), LG 롤러블이 각각 TV 부문과 모바일 기기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로써 LG 올레드 TV는 7년 연속 CES에서 최고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LG전자 측은 "올해 다수의 TV 제조사가 백라이트에 미니 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LCD TV를 선보이는 등 TV 업계에서 화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최고 TV는 LG 올레드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롤러블 스마트폰 'LG 롤러블'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업체보다 상용화 시점이 빠르고, 기술 구현력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엔가젯은 "올해 출시가 예정된 LG 롤러블과 달리, 중국 TCL이나 오포가 개발 중인 롤러블 스마트폰은 출시 계획이 명확하

지 않은 상태"라며 "더 중요한 건 이미 LG전자는 롤러블 TV인 '시그니처 올레드 R'을 통해 롤러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상업적으로 제작하고 유통해봤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개막에 앞서 진행된 혁신상도 석권했다.

삼성전자는 돋보이는 디자인과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4개의 최고혁신상을 포함, 총 4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삼성·LG전자 외에도 올해 CES에선 국내 기업 선전이 돋보였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에 따르면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386개 중 26%에 달하는 100개의 상을 국내 기업이 휩쓸 것으로 집계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6조5000억 '역대 최대'

전년보다 54.8% 늘어... 신규결성 조합 수도 206개 '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소부장펀드 등 3·4분기 결성액 급증
모태펀드, 민간·정책기관 출자 견인... '투자 마중물' 역할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벤처펀드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실적인 6조567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54.8%(2조 324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종전 최대 실적인 2018년 4조8470억 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신규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6개로 조사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 2분기까지 주춤했던 펀드결성 실적이 3분기에 2019년 대비 약 49.5%(5588억 원) 증가했고,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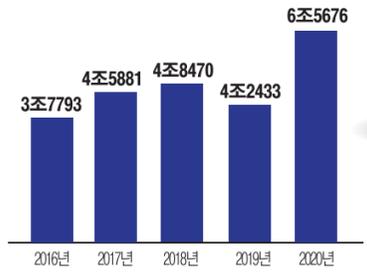
에만 3조6946억 원이 결성되면서 전년 대비 약 111.1%(1조9447억 원) 증가했다.

특히 4분기는 직전분기인 3분기와 비교해 약 118.9% 증가(2조71억 원)하면서 3분기 누적치인 2조8730억 원보다 높은 펀드결성 실적을 기록해 전체 펀드결성 실적 상승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추경 2000억 원을 통해 8월에 출자 공고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 등의 결성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 영향에 기인한다.

벤처펀드 신규결성에 대한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부문 출자가 약 2조 2465억 원, 민간부문 출자

최근 5년 벤처펀드 결성 추이
(단위: 억 원)



가 4조321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금융 출자 부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모태펀드(3570억 원), 산업은행, 정부기금과 같은 기타정책기관(3157억 원) 등의 출자가 크게 늘면서 정책금융 출자가 전년 대비 약 60.5% 가량(8466억 원) 늘어났다.

2분기까지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였던 민간부문 출자는 정책기관 등 출

2020년 분기별 벤처펀드 결성 추이
(단위: 억 원)



자가 늘면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 대비 약 52.0% 증가(1조4777억 원)였다.

이중 외국인 출자와 특정증권선신탁을 통해 투자하는 개인은 전년 대비 각각 1201억 원, 1311억 원가량 줄었지만, 연금·공제회(237.3%, 6502억 원), 금융기관(94.4%, 5121억 원), 법인(52.7%, 2864억 원) 등의 출자가 크게 늘

어나면서 민간부문 출자가 크게 늘었다.

전체 펀드결성 대비 모태펀드 비중은 감소(49.5%→49.2%)하고, 모태펀드가 견인한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오히려 7729억 원 늘어(1조2431억 원→2조160억 원)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 결성액은 3조2320억 원으로, 전체 펀드 결성액(6조5676억 원) 중 약 49.2%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전체 펀드 결성액 대비 비중(49.5%)보다 약 0.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운용사별로는 약 95% 이상의 비중을 창업투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LLC)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8월 12일 제정·시행된 벤처투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이 가능해지면서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벤처펀드 11개가 2020년도에 최초로 결성됐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버팀목자금 점검 현장서 눈물 흘린 박영선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 찾아
상인 애로청취 '더 못드려 죄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 신청 3.4조 지급



박영선(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임대료 내셨다고요. 저희가 200만 원 이상 대상자부터는 임대료에 (버팀목자금을)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만났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현장을 점검했다.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 수신과 신청 여부, 지원금 수령까지 걸린 시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돌아봤다.

현장에는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선 공릉도깨비시장 상인회장도 동행해 코로나19로 인한 도깨비시장 이외의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효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오방이 어수산'에 가장 먼저 들렀다. 이 곳에서 소라와 오징어를 구매했던 후 "재난지원금은 받으셨냐"며 "받아서 어디에 쓰셨냐"고 상인들에게 물었다. 오상균 사장은 "200만 원을 받아 가겟세를 냈다"며 "한 달에 135만

원인데, 다 같이 어려우니 깎아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상인과 함께 눈물도 흘렸다. 한 식당에 들어선 박 장관은 사장에게 마찬가지로 버팀목자금을 수령했는지 물었다. 이에 식당 상인은 "버팀목자금 200만 원을 수령했다. 가게 월세가 밀려서 받은 자금으로 이걸 냈다"고 설명하고,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상인의 이야기를 들던 박 장관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큼 못 드려니 굉장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총 236만 명에게 3조3909억 원어치가 지급됐다. 전체 신청 대상자(276만 명)의 85%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업

종별로는 영업제한업종 71만3000명에게 총 1조4264억 원이, 집합금지 업종 11만 2000명에게 334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또한 일반업종 153만 명에게는 총 1조 5303억 원이 지급됐다.

공릉도깨비시장에서 자금을 수령한 점포는 총 72곳이다. 시장 상인들은 수령한 버팀목자금을 대부분 임대료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임대료는 대부분 100만~200만 원에 달했다.

시장을 둘러보던 박 장관은 가게마다 들러 자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받지 못했다는 상인에게는 이유를 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를 즉석에서 호출하며 나서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KT 'AI 호텔' 시장 공략 박차

아코르·하얏트 이어 메리어트 계열에 솔루션 제공

객실 조명·가전, 음성 제어
각종 편의용품 로봇 배달도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에서 직원들이 KT AI 호텔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KT AI 호텔은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아코르(Accor), 하얏트(Hyatt)에 서비스 적용된 데 이어 이번에 메리어트(Marriott) 계열에서도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4일 KT는 AI 호텔이 총 35개 호텔, 7200개 객실(1월 현재 계약기준)에 제공된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 호텔이 총 1883개, 객실 수는 15만 4000개인 점, 글로벌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KT가 최초로 개척한 AI 호텔 시장은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KT AI 호텔은 투숙객들이 기가지니의 인공지능 음성명령을 통해 객실 조명이나 가전을 제어하고, 음악을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편의 서비스다. KT AI 호텔에 포함된 'AI 호텔 로봇'은 KT가 2019년 12월 선보인 AI 로봇이다. 공간맵핑과 자율주행 등의 첨단 ICT 기술을 적용했다. 호텔 투숙객이 수건, 생수 등 편의 용품을 요청하면 로봇이 찾아와 배달한다.

KT AI 호텔은 '대구 메리어트 호텔 & 레지던스'의 190개 호텔형 전 객실에 도입된다. 메리어트 레지던스에는 최초로 레지던스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 'AI 스테이(Stay)'를 선보인다. 'AI 스테이'는 객실 TV의 전용화면을 통해 공지사항, 시설정보, 용품요청 등의 컨시어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날씨, 대화, 키즈랜드, 홈트레이닝, 게임 등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기가지니'와 '올레TV'의 서비스들을 숙박시설인 레지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에는 KT의 'AI 주차 관제 솔루션'도 적용됐다. 차량 자동 출입관리부터 주차정보 제공, 주차환경 개선 기능을 제공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루다 논란 재발 막자"... 방통위, AI 교육·법체계 손질

AI 윤리교육·컨설팅 지원하고
윤리규범 구체화 등 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성희롱성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이용자·정부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 모두가 AI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과 사업자 컨설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용자·사업자 대상 AI윤리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 및 주제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

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또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원칙의 구체적 실행지침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019년 11월 '차별금지, 인간존엄성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할 바 있다. 해당 원칙이 선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연말정산 간소화, 카톡으로 인증"

홈택스 간편로그인 서비스

연말정산도 카카오톡이 해결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급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카카오톡 지급을 만들고 계좌확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인증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인증 요청 메시지에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으로 본

인 확인을 하면 간편 인증 로그인인 완료된다.

카카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카카오 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내 국민신문고에서도 활용 가능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연말정산 정보와 지급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탭을 샵 탭에 추가,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분증명의 역사부터 카카오의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를 소개하는 '카카오 인사이트 리포트: 디지털 신분증'을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신동빈 회장 “과거 성공 집착하는 기업엔 미래 없다”

롯데, 새해 첫 사장단회의

나이키처럼 계열사별 비전 확보
조직문화 개선·ESG경영 강조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혁신 주문



2021 상반기 롯데 VCM을 주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 롯데그룹

“5년 후, 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임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키가 운동선수에게 대한 존경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며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갖췄듯, 우리 역시 각 회사에 맞는 명확한 비전과 차별적 가치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열린 롯데그룹의 올해 첫 VCM(사장단회의)에서 “10년 후 미래를 임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글로벌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를 예로 들며 계열사별로 명확한 비전과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2021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별 대표이사, 롯데지주 및 4개 부문 BU(Business Unit)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는 ‘Rethink-Restart : 재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롯데그룹은 “지난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장·단기적으로 균형 잡힌 전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전망 및 경영환경 분석 △그룹의 대응 전략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방안 △CEO역할 재정립 등이 논의됐고, 마지막으로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들에게 약 30분간 메시지를 전했다.

신 회장의 발언은 지난해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다. 신 회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지표가 부진했고,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위기 때 혁신하는 기업이 위기 후에도 성장 폭이 큰 것처럼 올 2분기 이후로 팬데믹이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분발을 당부했다.

이어 신 회장은 사장단에 “각 사의 본질적인 경쟁력, 핵심가치는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5년 후, 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임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에만 급급하거나 과거의 성공체험에만 집착하는 기업에는 미래

도, 존재의의도 없다. 혁신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과감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신 회장은 “기업 문화 쇄신을 위해 2년간 어느 때보다 많은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에선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며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CEO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라며 “투자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에 맞는 실행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CEO들이 고객·임직원·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세울 때 강력한 실행력이 발휘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 경영’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철학이 담긴 ESG 경영은 최근 계계에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신 회장은 “ESG 요소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기업 생존 및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회장은 임직원에 대한 격려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TMF외환위기, 리먼 사태 때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우리에게 ‘위기 극복 DNA’가 있다”며 “저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 “건강을 선물하세요”

이마트가 올해 설을 맞이해 건강식품 선물세트 판매 확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번 설 사전예약 기간 지난해 설 대비 품목 수를 4배 이상 늘린 57종의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운영한다. 9900원 초저가 선물세트와 다양한 1+1 행사도 기획했다. 대표 품목으로는 ‘휴림 매일습관 나이트핑크/모닝사과’ 제품을 행사카드 구매 시 50% 할인된 9900원에 판매한다. ‘녹십자웰빙 진액세트(4만9900원)’, ‘동원 천지인 세트(3만9900원)’은 1+1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귀성 대신 선물... 설 예약 판매 ‘들쭉’

이마트 사전예약 신장률 85% 롯데·현대百貨도 예판 실적 올라

설 사전예약 판매(이하 예판)가 치솟으며 유통업체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귀성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특히 건강 관련 상품의 매출 호조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0일 동안 사전예약 매출을 전년(2019년 12월 5일부터 24일까지)과 비교한 결과 사전예약 신장률은 무려 8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수요가 늘며 건강식품 카테고리도 430.7%의 신장률을 기록, 사전예약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조미료·통조림 세트도 140.9% 더 팔렸고 축산과 과일, 와인 매출도 각각 40.3%, 46.4%, 40.3% 치솟았다.

롯데마트도 매출 호조를 보였다. 설 선물 예판에 나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보름간 매출을 2019년 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비교해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살펴보니 전년 대비 42.6% 신장했다.

건강기능식품이 78.7% 신장한 가운데 대표 상품인 홍삼 관련 세트의 매출이 349.9% 큰 폭으로 신장했다. 또한 양주와 와인 선물세트 매출도 각각 84.9%, 104.7% 신장했고, 사과와 배를 포함하는 과일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98.4% 올랐다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 많아 예약판매보다 본 판매 실적이 좋은 백화점도 사전예판부터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갈비가 255%, 청과가 135% 치솟았고 굴비도 118% 올랐다. 다만 생필품 관련 선물 세트는 22% 떨어졌다.

이달 들어 4일부터 10일까지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 예판 실적도 작년 설보다 7.8% 올랐다. 청과(13.0%)와 정육(10.9%)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건강식품도 6.1%로 올랐다. 신세계백화점의 이달

이마트 설 선물 사전예판 실적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11일 * 출처: 이마트

4~11일 예판 실적 역시 지난해보다 1.5% 올랐다. 축산이 3.0% 상승했고, 수산도 2.7% 뛰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 추석 부모님이나 친지를 직접 찾지 못하는 대신 선물로 대신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실제 지난해 추석에도 정부가 나서서 귀향을 자제하면서 귀성객은 다소 주춤했다.

이에 따라 선물 구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업체별 혜택도 풍성하다. 롯데마트는 내달 1일까지 전 점역에서 2021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해 엘포인트(L. POINT) 회원 및 행사카드를 선물세트를 구매한 고객은 정상이 대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는 사인머스켓 등 ‘트렌드 과일 선물세트’를 지난 설 1종에서 올해 5종으로 늘리고, ‘피코크 메로구이선물세트’, ‘랍스터세트’도 선보이며 다양해진 선물 취향을 충족시킨다. 홈플러스도 작년 설보다 20% 늘린 530여 종을 준비하고 행사카드 할인 등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17일까지 한우 10%, 굴비 20%,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24일까지 사전예판을 진행하는 신세계는 지난해 설보다 21개 품목이 늘어난 총 271가지를 준비하고 SSG닷컴 등 판로를 확대했다. 현대백화점도 사전예약 물량을 50% 확대하고 현대닷컴 등을 통한 선물하기 기능을 강화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설 명절에 귀성객이 줄면서 선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전예판 실적이 좋은 만큼 본 판매에서는 프리미엄급 선물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수백만원 펫유모차에도 지갑 여는 사람들

반려동물 시장 6兆 규모 성장... 유아용품 시장 이미 추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를 맞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서울 시 인구보다 많아진 것은 불과 몇년새 일이다. 5년 전만 해도 1000만에 육박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단기간 내에 50% 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도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조8000억원이었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50% 늘어나는 사이 시장은 3배 이상 커진 셈이다. 유아용품 시장규모 4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는 비용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커진 이유는 뭘까.

이처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진 배경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씀씀이가 커진 때문이다. 언제부터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대신 반려동물이 그 단어를 대신하게 됐다.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무풍큐브 펫케어’.

일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결국 내 가족에게 보다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시장을 키운 것이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반려묘를 위해 캣타워와 스크래처, 배식기, 배변박스 등 다양한 용품을 구입하는데 200만 원 이상 지출했지만 아직도 구매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커머스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초고가 반려동물용품들의 가격은 ‘상상초

월’이다.

유아용품 기업 에이원이 선보인 반려동물 브랜드 ‘리안펫’의 반려동물 유모차 가격은 20만원대 중반 정도다. 그나마 반려동물 ‘엄빠’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하다. 아늑하게 아니라 ‘에어바거’ 제품의 가격대는 110만 원대에 이르고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유모차 가운데서는 20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며 펫 카시트를 구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펫 카시트 ‘폭스박스’ 가격은 80만원대에 달하고 해외직구 제품 중에는 500만 원을 웃도는 경우까지 있다.

고양이 필수품 중 하나인 캣타워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원목으로 만든 고가 제품은 80만원대, 저렴한 제품도 10만 원대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인구 사이에서도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 ‘개 팔자가 삼팔자’라는 옛 속담이 현대 사회에도 꼭 맞는 말이 됐다는 얘기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오투기, HMR 기대작 ‘라면비책 닭개장면’ 출시

오투기가 가정간편식(HMR) 콘셉트의 프리미엄 라면 제품군을 강화한다.

오투기는 오투기가 큼지막한 닭고기와 진하고 얼큰한 국물로 맛과 영양을 모두 담은 ‘라면비책 닭개장면’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라면비책은 프리미엄 라면브랜드로 오투기가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다. ‘오투기의



기존 라면과 가장 큰 차이점은 레토르트 파우치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오투기 컵

밥, 3분 카레 등 오투기 정통 HMR에 활용됐던 파우치로, 닭고기 등 음식, 소스가 통째로 들어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주력한 제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차별화된 제품 출시로 라면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질적 성장’에 주목해 이번 세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오투기 측은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증시 판치는 주식 리딩방... 먹잇감 된 '개미들'

'3일간 VIP 무료체험', 김지석 씨(가명 32세)는 속는 셈치고 리딩방에 가입했다. 추천받은 몇 개 종목이 수익을 내자 유료 회원으로 전환했다. 추천받은 A의 매도 시기를 묻자 "월요일에 더 오른다"는 말에 기다렸다. 지정해준 매도일, 주가는 급락했다. "손실이 났다"고 운을 떼자 운영자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혼자 투자하시라"라고 쏘아붙인 뒤 잠적했다.

이지영 씨(가명 29세)는 오전 9시부터 3시 30분 사이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 지난해 11월, 주식에 입문하면서 구독했던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면서부터다. '고급 정보를 원하는 분은 댓글'이라는 말에 의심 반, 호기심 반에 연락처를 남겼다. '1:1 맞춤형 서비스'는 월 50만 원, 한 달만 하려고 했더니 제일 짧은 게 3개월, '선불'이란다.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번호를 바꾸면서도 끈질기게 전화가 온다.

단체 대화방 '프리미엄 정보'로 고가의 유료 회원가입 부추겨 비싼 위약금 벌미로 해지 거부 요금 납입하자마자 연락두절도

유례없는 증시 활황에 '동학개미'를 노리는 이들이 있다. '고수익', '원금보장' 등을 내걸고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 리딩방(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들이다. 오픈 채팅방에서 유튜브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증시 활황을 틈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함께 일반인들의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센터장', '애널리스트' 등으로 지칭하면서 주린이를 유혹하고 있었다.

대부분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프리미엄 정보'라는 미끼로 비싼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



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 손실,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미들을 울리는 수법은 더 치밀해졌다. 주된 피해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을 벌미로 한 해지 거부다. 이른바 '수수료 먹튀'도 대표적인 사례다. 문자메시지와 SNS 등으로 업체 측과 원활히 소통되다가 이용요금 납입이나 환불 요구 뒤에 연락이 끊기는 경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린이'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 초보자를 뜻함)를 대상으로 먹잇감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가

짜 'HTS'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사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내려받도록 유도한다. 이후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뒤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SNS나 이메일로 사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볼 수 있다며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작전주로 의심되는 종목 매수를 부추기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주요 대상은 주로 동전주나 이른바 잡주들이 대부분"이라며 "거래량이 적거나 부담 없는 가격의 종목을 중심으로 해야 몇몇 명의 사람으로도 시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업체에서 여러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 빈번하다"며 "한 방에서 '매수' 신호를 보내놓고 다른 방에선 '수급이 몰린다'고 부추기고, 또 다른 방에선 "보셨죠,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라며 현혹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주식 커뮤니티에 리딩방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클럽 유료회원인데 추천 종목 A를 팔려고 하니 지금은 못 팔게 했다. 기다렸더니 폭락했다"며 "아무래도 운영자는 주가 높여놓고 자기 것만 챙긴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한국거래소는 스팸 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팸 문자 종목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분석정보를 폭넓게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기업들, 분기보고서 공시항목 40% 줄어든다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 발표... 투자자에 '사업 안내서' 제공

앞으로 기업들이 분기보고서를 만들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는 2030년부터 유가증권 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 투자자도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해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풀어쓴 안내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들에는 분기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활용도는 낮고 작성 부담은 컸던 분기보고서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공시항목을 40% 가량 줄일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규모 기업은 공시특례 대상 기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공시특례 확대 대상 기업은 현행 1149곳(41.6%)에서 1395곳(50.5%)으로 늘어난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마찬가지로 증권소유자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데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부터는 유가증권 상장사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2016년 제정된 스튜어디스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제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한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에 상장된 역외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 kim@ 이인아 기자 ijh@

<기업 PR>

하이투자증권 'KB 코리아뉴딜펀드'

액티브 성격의 주식형 펀드... 시장 상황별 탄력 대응 강점

하이투자증권은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구조적 성장을 기대하며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KB코리아뉴딜 펀드(주식형)'를 추천했다.

'KB코리아뉴딜 펀드'는 위험등급 2등급, 적극 투자 성향 이상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주식형 펀드로,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특정 컨셉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액티브 성격이다.

지난해 10월 7일 설정 후 51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12월 18일 A클래스 기준 1개월 수익률 11.3%, 설정 후 수익률 12.2%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삼성전자, 카카오, NAVER(네이버), SK하이닉스 등, 그린 뉴딜로는 LG화학, 한화솔루션, 천보, 씨에스윈드, 현대차,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있다. 코스피 70%, 코스닥 30% 수준으로 투자하는 만큼 대형주 및 중·소형주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시장 상황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미국 대공황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뉴딜정책에서 착



안한 것으로, 약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센터,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의 대표 과제가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친환경 정책 공약과 중국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사회 목표의 정책 시행 등 친환경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성장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큰 흐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증권사 신용등급 상향 '청신호'

신평3사 '대형사보다 '긍정적'

중소형 증권사들의 신용등급 상향 러시가 예상된다.

14일 크레딧평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들은 올해 증권업계의 신용등급 방향성을 '중립적'(한기평·한신평) 또는 '안정적'(나신평)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신평3사는 일관되게 중소형 증권사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을 대형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기조 속에서도 증권업에서 무려 4개(교보증권·유안타증권·DB금융투자·현대차증권)의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사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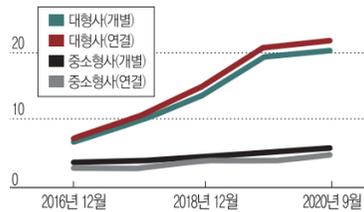
올해도 증권업은 △자본시장 변동성 △

우발채무 △파생결합증권 △해외PF 등의 신용도 위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자본력 대비 위험소스가 적고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높여 투자 여력이 커진 중소형사들의 신용등급 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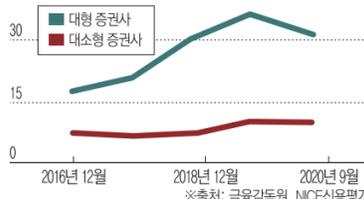
윤재성 나신평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대형 증권사들은 확충된 자본을 바탕으로 고위험·고수익 부문의 강화 등 위험 인수를 확대해오면서 급격한 외부충격 발생에 따른 부정적인 영업환경에 더욱 노출된 상황"이라며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형사 대비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가 작은 수준이며, 계열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한 자본확충에 나선 곳이 많아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 1조 원을 달성한 증권사는 한

대형사·중소형사 총위험액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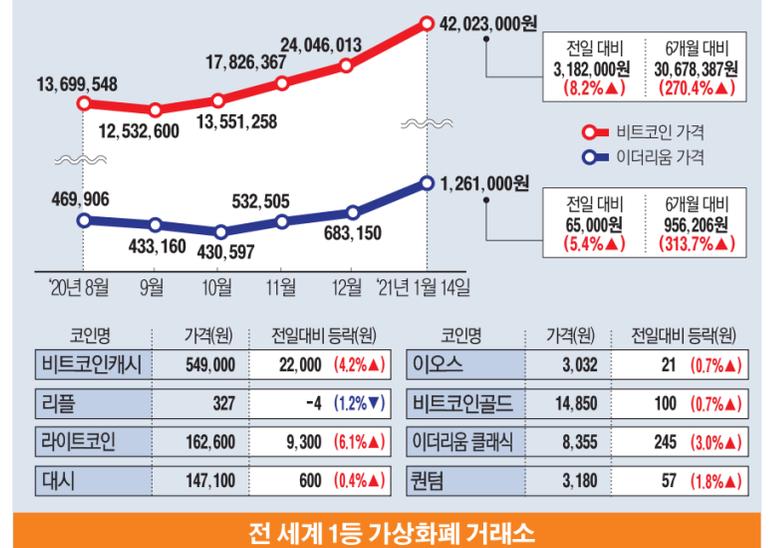
대형사·중소형사 우발채무 추이 (단위: 조 원)



화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있다. 다만, 신평사들은 중소형증권사들에서도 신용등급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1월 14일 17:00, KST)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쭉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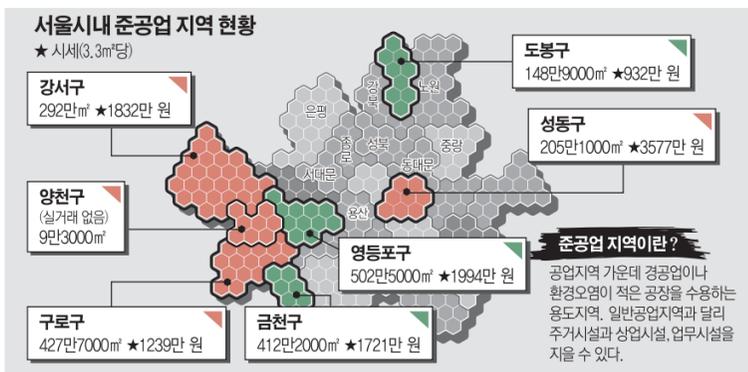
국토부·서울시, 순환정비사업 추진 3월께 시범사업지 3~4곳 선정 계획 문래동 기계상 3.3㎡당 1.2억에 팔려 양도세 부담·정책 불신... 토지주 관망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쭉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순환정비사업이 개발 비중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노후 공장이 이전한 땅은 주거 기능과 산업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7000가구 규모 주거를 확충하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지인 산업부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용자도 지원해준다. 국토부 등은 다음 달까지 서울 준공업지역에 3000㎡ 이상 공장용지를 가진 토지주에게 공모를 받아 3월 중 시범사업지 3~4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약 1998만 ㎡에 이른다. 주로 영등포구(502만 ㎡)나 구로구(428만 ㎡), 금천구(412만 ㎡), 강서



구(292만 ㎡) 등 서울 서남권이나 성동구 성수동(205만 ㎡) 등에 몰려 있다. 산업화 시대에 조성된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용적률·건폐율 규제가 느슨하고 도심 접근성도 좋지만 다른 지역보다 개발 속도가 더뎠다. 건물 용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다른 용도로 짓는 게 쉽지 않아서다. 이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선 규제만 완화되면 준공업지역 개발은 시간 문제라고 봤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변창홍 국토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강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요즘 준공업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쭉이고 있다. 순환정비 사업지가 아니라도 개발 기대감 때문이다.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된 만큼 ‘가격 따라잡기’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바람도 있다. 지난해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매매된 비주거(상업용·업무용) 건물의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759만 원이었다. 아직 서울 평균 거래가격(2586만 원)보다 저렴하다.

일부 지역에서 몸값이 3.3㎡당 1억 원을 넘어서 비주거용 건물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동구 성수동1가에선 60년 된 연면적 56㎡·대지면적 74㎡짜리 상가 건물이 23억 원에 팔렸다. 3.3㎡당 가격이 1억3500만 원이 넘는다. 영등포구 문래동4가에서도 연면적 47㎡·대지면적 149㎡ 넓이의 기계상 건물이 3.3㎡당 1억2500만 원이 넘는 17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선 자산가들에게 주거지역보다 준공업지역 투자를 권하기도 한다. 성수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공업지역 내 단독주택 중엔 시세가 3.3㎡당 7000만 원 선에 형성된 곳도

있다”고 전했다. 성수동 ‘성수 롯데캐슬파크’ 아파트는 현재 3.3㎡당 약 4000만~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준공업지역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은 아직 당장 개발이나 처분에 나서기보다는 정책 흐름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문래동 M공인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주들은 대부분 소규모 공장에 임대료를 주면서 월세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라며 “양도소득세율이 30%까지 나갈 텐데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순환정비사업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준공업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은 대부분 민간 토지주인 만큼 용적률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끌어내고 주거 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출처: 국토부, 서울시

- 공모신청 (2020년 11월 4일)
- 후보지 추천 및 사업지 분석 (2020년 12월 10일~)
- 도시건축 TF 사전검토 (2020년 12월 21일)
-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021년 1월 15일 발표)
- 관계부서 협의

공공재개발이란?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
-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 보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조업원 물량 제외 추가 공급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신청 현황 총 70곳

- 기존 구역: 14곳 • 신규: 56곳
- ※ 이 가운데 시범사업지는 기존 구역 중 선정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강북권 유력

오늘 발표...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에 사업 빨라질 듯

빌라 몸값 상승, 부담으로 작용

서울 도심 내 4만 가구 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재개발’ (공공 참여형 재개발) 시범사업지가 15일 발표된다. 사업 대상지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강북지역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까지 진행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은 14곳이고 나머지 56곳은 정비구역 지정 후 해제됐거나 신규 신청한 지역이다. 시범사업지는 기존 정비구역 14곳 가운데 선정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지 발표를 시작으로 3월 말에는 신규 신청지역 56곳 가운데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시범사업지는 주로 강북지역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강북권 주요 정비구역은 동대문구 신설1구역, 답십리17구역, 강북구 강북2·5구역 등이다. 앞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 당시 강북 내 기존 정비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이 대거 몰렸다. 이들 구역은 강남권보다 지역 노후도가 높았지만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변창홍 국토부 장관은 도심 고밀 개발과 함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주택 공급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빠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공공재개발 사업 기대감으로 서울 내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이 들쭉이고 있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빌라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0월 0.15%에서 11월 0.18%, 지난해 10월 0.19%로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북지역의 지난해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22%로 평균을 웃돌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못 쓴다

전기차 충전소 도심내 설치 허용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도심 내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연면적 1000㎡ 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한 시설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선생님 투자하는 마음은 어떠세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티레이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먼트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담보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刑 채우면 87세... 전직 대통령 동시수감 재현

‘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마무리 공천 개입 2년형 더해 총 22년 유승민 “사면, 대통령 결단할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

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일었고, 국민도 균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이 종료될 시점에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두 사건 각 형량 보다는 수위가 줄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시점 나이는 87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가석방 등이 없으면 95세가 되는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앞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과 관련해 동시 복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11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전



시민들이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사면할 때까지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동시에 복역 생활을 하게 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로 다른 곳에 수감돼 있다.

한편 여야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진솔한 사과”를,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논평을 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bhc ‘치킨전쟁’ 승소 “BBQ, 290억 지급”

독점 계약 일방 해지 부당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10년 독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bhc의 15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의 19.6%를 곱한 금액이다.

bhc는 2018년 2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BQ는 과거 자회사로 있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도 그동안 BBQ가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

재판부, 전 비서 병원 치료 근거로... “피해자 정신적 고통”

A 씨는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6개월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

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

이 속옷 차림의 사진과 야한 문자를 보냈다’, ‘성행위 과정을 줄줄이 이야기했다’ 등 진술에 비춰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언급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한끼애®

집밥프로젝트



한성기업
Since 1963

대한민국 인기 메뉴를 만두에 담았다!



“한끼애”는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3. HANSUNG Enterprise

“시장은 인기보다 민생해결 능력이 중요”

서울 동맥을 가다 ④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부시장 등 굵직한 경험 살려 '서울다운 서울' 모든 시장 출마

규제 없애고 양질의 주택 공급 재건축·개발 풀어 숨통 틔워야

10년간 정체됐던 서울 대개조 매력·활기 넘치는 도시 만들 것

‘서울시부시장, 여성가족정책관,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왔다. 10년 동안 여러 직책에서 서울 행정을 도맡으며 쌓은 경험과 능력은 그를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만들었다. 정치적 손익 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만 생각한다든 조 구청장. 이 똑심과 경험을 살려 ‘서울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표를 던졌다.

“10년 동안 서울은 정체됐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규제행정 속에서 활력이 사라지고, 도시경쟁력도 떨어졌죠. 대표적으로 상암동 월드컵대교는 12년째 공사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10년째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서울은 정쟁이 아닌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조 구청장은 청년기본소득, 재산세 감경, 구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 등 굵직한 정

책으로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출마 선언을 한 다른 대선주자급 후보자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구청장은 14일 “서울시장은 인기투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정치적 담론에 치우쳐 있고, 민생 문제 콘텐츠가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화를 두고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대권병에 걸린 중앙정치인보다 생활을 보듬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예산 40조, 1000만 시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예요. 행정 매커니즘을 모르면 배우다가 끝납니다. 저는 10년 행정의 경험의 일 잘하는 ‘무사고 베테랑 모범운전자’입니다. 행정 경험과 정무적 감각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검증받았죠.”

그는 ‘미래 아젠다’를 거듭 강조했다. 청년이나 부동산 같은 주제는 진보나 보수나 의 진영논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청년들의 위기가 한국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미래먹거리에 적합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해 실제로 생산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해결책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35층 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로 묶였죠. 또 좋은 주택을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게 공급해줘야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매년 13만 호씩, 5년간 양질의 총 65만 호 공급으로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서남권 G밸리 ‘굿(good) 뉴타운’ 사업으로 5년간 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대규모로 추진했던 뉴타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쪼개서 추진하면 영등포, 구로, 금천 서남권에만 주택 20만 호 공급이 가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4일 서울시장 출마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사진제공 서초구

하다. ‘굿 뉴타운’은 집주인만 배 불리고 전·월세 세입자를 쫓아내는 ‘눈물의 재개발’과 다르다는 게 서 구청장의 생각이다. “서울시 전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 추진 중인 214개의 정비사업과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면 총 35만 호를 공급할 수 있죠. 재원은 재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일명 ‘서울균형발전기금’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40년간 동봉부터 서초까지 이사한 10년을 다녀서 동서남북을 잘 아는데 ‘강남·북 균형개발’ 시각으로는 해법이 안 나와요. ‘동서남북 균형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에 ‘플러스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생정치, 민생행정’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 잘하는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권 교체의 초석이 될 겁니다. 저는 내년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이 그 중요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일 잘하는 준비된 시장입니다. 서울을 매력 있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도록 연습 없이, 아무지게 쟁기겠습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여성뿐 아니라 주민 누구나” 강동구 여성안심택배함 호평

서울 강동구는 여성범죄 예방과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안심택배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강동구는 여성 가구 밀집지역과 원룸·다세대 지역에 14개소의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연간 이용 건수가 2013년 3970회에서 2020년 3만 2387회로 7년 만에 약 8배에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여성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6%가 여성안심택배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1.4%가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수요가 조사됐다.

여성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48시간 동안 보관료가 무료이나 48시간이 초과하면 하루에 1000원씩 요금이 부과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중구 감염병관리팀 승격

서울 중구가 감염병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다.

중구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존의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과로 승격해 편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염병관리과 내에는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역학조사팀, 자가격리관리팀 등 4개 팀을 구성했다.

4개 팀 중 감염병예방팀은 각종 감염병 위기 예방·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등 진행이 예상되는 감염병 관련 업무와 행정 업무를 추진한다. 감염병대응팀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기타 급성감염병에 관한 사항 등 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역학조사팀은 감염병 발생 인지 후 심층, 현장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한다. 자가격리관리반은 해외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관리와 격리자들을 위한 시설인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생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세모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라 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0쪽 / 국문판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8원 / 215,800원



“다시 젊어질 순 없지만 ‘봄’까지 사라진 건 아니죠”

‘노래가 필요한 날’ 펴낸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김창기

1980~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포크 밴드 ‘동물원’의 멤버 김창기(58). 현재 ‘김창기 밴드’의 리더로도 활동 중인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정신과 의사다. 낮에는 정신 건강을 돌보는 의사로, 밤에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살아온 지 30여년. 의학과 음악이라는 동떨어진 두 영역을 반평생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을 향한 관심과 애정 덕분이었다. 그는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고 노래하며 의사로서, 또 가수로서 대중의 마음을 다독여왔다.

김창기는 10여 년 전 소아청소년정신과 관련 도서인 ‘당신의 아이에게도 리듬이 있다’와 ‘나는 아이의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를 펴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말에는 ‘노래가 필요한 날’을 내놓았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음악인의 면모는 물론 예순을 바라보는 중년의 담담한 성찰도 담겨 있었다.

“이번 책은, 안정적인 어른이 되어가기 위한 서툰 어른들의 이야기일까?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요즘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과 성숙한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 했어요. 플레이리스트라는 형식으로 각 글에 어울리거나 떠오르는 노래들도 함께 소개했죠. 마음이 복잡할수록 세상모르고 살게 해주는 노래가 필요합니다. 잠시나마 책에 실린 노래를 들으며 쉬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씩씩해서 우리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힘도 얻을 수 있

거든요.”

그는 책을 통해 안정적인 어른, 좋은 어른, 관찮은 어른이 되어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성숙한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욕망은 억제하고 부당한 권력에 대항할 용기가 필요하죠. 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유머와 융통성도 겸비해야 하고요.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제2외국어 배우듯’ 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습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원초적이지만, 가령 영어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잖아요. 것처럼 노력하고 배우면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봄을 살다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그는 ‘달린 자아’와 용기 내어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열린 자아’로 성장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달린 자아란,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자신이고, 열린 자아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자신입니다. 인간의 성장에 방해되는 이 닫힌 자아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다른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닫힌 자아와 마주하는 방법은 대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죠. 가족이나 친구가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 지적했을 때, 비난과 공격이라 여기지 않아야 비로소 열린 자아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용기 내어 힘든 일을 해결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김창기는 “책임감 있는 자유를 누리



안정 찾아가는 서툰 어른 이야기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노래 소개

음악인의 면모·담담한 성찰 담아
영혼의 휴식처 같은 책 됐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달린 자아’와 마주할 용기 필요

인생은 현실과 환상의 균형
타인에 관용 베풀고 다름 수용해야

나이에 걸맞게 사는 인생이 멋있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나이’에 대해 “신체의 나이가 아닌 계절의 나이를 살라”고 조언했다. ‘계절의 나이를 산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했다.

“나이라는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감정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거예요. 즉 봄을 느끼지만 말고 실제 봄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과거처럼 청바지 입고 머리 기르라는 말이 아녜요. 세월을 핑계 삼지 않되, 새로운 자극과 목적을 찾아 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젊어질 필요는 없지만, 삶을 음미할 필요는 있잖아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건 바로 삶의 즐거움과 의미죠. 시간의 흐름을 늦추고 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해

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점점 느려지고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음표와 느낌표가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고요.”

현실적인 기대 품는 2021년

봄의 나이를 살기 위한 도전. 마침 새해도 밝았으니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기에도 시의적절할 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야심차게 꾸린 한 해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는 “내가 아닌 나에게 거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이 좋은 목표를 세워 실천하면 지금의 내가 크게 달라지리라 착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래와 현재의 나는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가령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대부분은 타인을 생각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렇듯 두 존재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이루지 못해 실망하게 되죠. 꾸준히 노력해 10년 뒤엔 이상적인 내가 될지라도, 당장 한 해의 계획은 바로바로 이뤄가며 자긍심을 키울 작은 목표가 좋습니다.”

김창기는 “인생은 현실과 환상의 균형”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에게도 1988년처럼 쓰는 곡마다 대박을 터뜨리면 좋겠다는 환상이 어렵듯이 존재하지만, 이는 현실에 방해만 될 뿐이다.

그간 해오던 대로 환자를 돌보고 꾸준히 곡과 글을 쓰며, ‘내일은 더 좋은 날’이라고 믿는 낙천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것이 그가 품는 현실적인 목표이자 기대다.

그는 새해를 맞는 독자들에게도 현실적인 덕담을 건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단한 복은 기대 마시고요. (웃음) 그저 내게 가장 소중한 대어섯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그들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보여주길 바라는 태도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혹여 그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어보세요. 나아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춰 변화시키려 들지 않겠다는 ‘수용’도 필요하죠. 그러려면 내가 양보하고 손해 보며 이타적인 한 해를 살아야겠죠. 어렵겠지만 부디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단, 힘들 땐 잠시 쉬어가며 꼭 자신을 보호해주시고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만 있다면 휴식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글/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swanicoco
NATURAL COSMETIC

피부 본연의 힘을 키우는 프로바이옴



저자극 고보습 시너지

- 쌀겨수
- 10가지 프로바이오틱스
- 시카바이옴 콤플렉스



천연화장품 스와니코코
프로바이옴 바디로션 · 바디워시

“반도체 제조공정 ‘그린 인프라’ 구축이 목표”

글로벌인프라총괄 첫 ‘삼성명장’...정호남 명장

유해 화학물질 대체·폐열 회수 등으로 녹색경영상 두 번 수상
“에너지 절감·폐수 재이용·냄새 제거...아직 극복할 과제 많아”

삼성명장 제도가 2019년 도입된 이후 최초로 글로벌인프라총괄에서 명장이 탄생했다. 삼성전자는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최고 전문가를 ‘삼성명장’으로 선정, 장인 수준의 기술 전문성, 리더십 등을 계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기존 △제조기술 △금형 △품질 △설비 △계측 △레이아웃 등의 분야 이외에도 △인프라 분야까지 선별을 확대,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6명의 ‘삼성명장’을 선정했다.

정호남 명장은 1989년 입사해 32년 동안 설비 전체 공정을 거쳐 유틸리티 설계와 시공, 시운전과 운영에 대한 독보적인 현장 실무 노하우를 보유한 반도체 팹(FAB) 유틸리티 기술전문가다.

그는 “인프라는 인체로 따지자면 보이지는 않지만 사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신진대사 역할을 한다. 인프라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연속 공급이나 중단이 없도록 가동되기 위해

3000여 명의 총괄 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명장은 녹색 경영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등 사업장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2019년 폐수처리 공정에 사용되던 황산과 가성소다를 전부 배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산과 가성소다는 유독성 물질임에도 폐수 중화 처리를 위해 사용이 불가피했는데, 정 명장은 이런 유해 화학물질을 일반 화학물질로 대체했다.

또한, 반도체 생산장비의 발열을 냉각할 때 발생하는 폐열(약 30도)을 버리지 않고 재회수해서 펌 온습도를 제어하는 열교환기에 재활용했다. 덕분에 1년에 온실가스 3만3000톤과 에너지 절감을 이뤄낼 수 있었다.

정 명장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화학물질과 가스, 물이 필요하다. 또 온도와 습도가 항상 일정한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냉수와 스팀을 끊임없이



2019년 제도 도입 후 글로벌인프라총괄에서 처음으로 ‘삼성명장’으로 선정된 정호남 명장.

생산해야 한다. 사용한 화학물질과 가스는 다시 환경 법규에 맞게 처리해 배출해야만 한다”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엮여 있다. 앞으로는 ‘필(必)환경’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한의 에너지 절감과 폐수 재이용률 100% 달성, 냄새 제거 등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명장으로서는 이를 해결할 ‘그린 인프라’를 꼭 구축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명장은 후배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이어가고 있다. 잠재위협지단을 위한 ‘타산지식 전달팀’을 운영해 전 설비군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학습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명장의 의미는 단순히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술을 동료들에게 나눠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배들을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김건주(왼쪽 사진)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과 배문성(오른쪽) 특수거래과 서기관을 선정했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에 나서고, 방문판매업체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최윤 OK금융 회장 럭비협회장 당선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제24대 대한럭비협회장에 당선됐다.

14일 OK금융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12일 진행된 제24대 대한럭비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104표 중 78표를 얻어 당선됐다. 협회장 임기는 4년으로 2025년 1월까지다. 박은평 기자 pepe@



실리콘마이터스 허엽 대표 회장 승진

전력반도체 전문 기업 실리콘마이터스 허엽 대표이사 사장에서 회장으로 승진됐다고 14일 밝혔다.

허엽 회장은 미국 스탠퍼드 전자공학 박사 출신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등에서 임원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7년 실리콘마이터스를 설립해 고성능, 고효율 PMIC 및 아날로그 반도체 솔루션 분야에 특화된 비메모리 사업을 이끌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부음

펜으로 문화재 복원...펜화가 김영택 씨
펜화가 김영택 씨가 1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우리 건축 문화재를 펜으로 복원하는 데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1945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산업디자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93년 국제상표센터가 세계 정상급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주는 ‘디자이너 앰배서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다. 디자이너로 성공했지만 여전히 펜화를 접하고 화가로 나섰다. 화재로 소실됐던 송래문의 1910년대 전경을 비롯해 양산 통도사, 해인사 일주문, 광화문, 밀양 영남루, 경주 황룡사 9층 목탑 등 소중한 전통 건축물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종란 씨와 아들 김한열(하나사인물 대표), 김준범(필코리아) 씨가 있다. 빈소는 인천 청기외장례식장. 발인은 15일 오전. 032-583-4444. 연합뉴스



타타대우 준중형트럭 ‘더 센’ 1호차
김방신 사장, 고객에 황금열쇠 전달



타타대우상용차가 새로 선보인 준중형트럭 ‘더 센(the CEN)’의 1호차 전달식을 열고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더 센’ 생산 공장에서 김방신 사장과 1호 구매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견학과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1호차 구매 고객으로 초청된 김원중 해당종합건설 이사에게 차량과 함께 사업의 번영을 기원하는 황금열쇠를 전달했다.

김방신 사장은 “1호차 인도를 시작으로 ‘더 센’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만큼, 타타대우상용차가 선사하는 ‘더 센’의 압도적인 효율성과 편의성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비트코인 비번 까먹은 남성 2600억원 잃을 위기

입력 기회 10번 중 8번 써...모두 틀리면 영원히 날리게 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담긴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까먹은 한 남성이 2600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기회는 단 두 번이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스테판 토마스(사진)는 10년 전 가상화폐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2비트코인을 받았다. 당시 2~6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급등해 최근 3만4000달러 수준까지 올랐고, 토마스가 보유한 가

치 역시 약 2억3806만8000달러(약 26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토마스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총 10번의 입력 기회 중에 이미 8번을 써버렸다. 가상화폐 지갑은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내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암호화해 다시는 화폐를 찾지 못하게 된다. 토마스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비번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며 망연자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데이터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체 1850만 비트코인 가운데 약



20%(1400억 달러 규모)는 분실되거나 토마스와 같이 지갑에 묶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밀번호 복구 서비스를 하는 윌렛리커버리서비스는

최근 하루 평균 70건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 대비 3배 불어난 수치라고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너도나도 잊어버린 비밀번호 찾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NYT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비트코인 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에 접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좌절하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확산하기 어렵던 10년 전 초기부터 소유해왔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모더나 CEO “코로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

풍토병화 가능성 언급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사진) 최고경영자(CEO)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방셀 CEO는 이날 JP모건체이스의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앞으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중보건 및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견해라고 CNBC는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항공청장 지중철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박재순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안정훈

◆한국환경공단 ◇임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전략처장 이지우 ◇부서장 전보 △홍보실장 안병용 △경영지원처장 전용중 △환경인증검사처장 박현규 △토양지하수처장 김태래 △물환경관리처장 정희신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숙현 △자원재활용처장 홍성근 △폐자원사업처장 박광규 △환경시설처장 정운섭 △환경에너지시설처장 구현덕 △생활환경안전처장 김상원 △환경기술연구소장 이재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박석훈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전준희 △“자원순환관리처장 이호철 △“환경시설관리처장 황정현 △“환경안전진단처장 서정일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양경환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성

수 △“환경시설관리처장 신명석 △“환경안전진단처장 한영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윤기명 △“자원순환관리처장 안병철 △“환경시설관리처장 김선필 △“환경안전진단처장 이종연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안화수 △“환경시설관리처장 이창직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장 이두열 △호남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여용하 △“환경시설관리처장 한백일 △“환경안전진단처장 장종근 △“전북지사장 최용 △“제주지사장 김관수 △비서실장 최정환

◆산업은행 ◇본부장·지역 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부산경남지역본부 박영호 △구조조정본부 강병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서근모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부장 이완희 △강북지역본부 김영진 △경인지역본부 민경필 △중부지역본부 정광일 △부·실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장인규 △간접투자금융실 이상근 △네트워크지원실 한민석 △신산업금융실 장세호 △해양산업금융실 김중근 △산업·

금융협력센터 백준영 △기업금융1실 박종만 △기업금융4실 최만식 △기업구조조정1실 임정주 △기금운용국 이정권 △금융공학실 이제희 △발행시장실 김지완 △M&A 컨설팅실 서동호 △PPF1실 이희준 △심사1부 박동상 △심사2부 고영현 △신산업심사부 이용모 △신용평가부 김성훈 △연금사업실 김계환 △여신감리부 임병삼 △디지털추진부 송운석 △IT기획부 유훈수 △금융전산부 윤정식 △기획조정부 이봉희 △여수신기회부 윤종열 △재무기획부 주동빈 △ESG·뉴딜기획부 최호 △인사부 박운선 △미래전략개발부 이정환 △윤리준법부 이현영 △감사부 정성욱

◆KTB투자증권 〈신규 선임〉 ◇본부장 △리태일본부 상무 김진태
◆KB국민카드 ◇부장 승진 △기업고객사업부장 윤부원 △온라인영업부장 김현일 △데이터개발부장 조희래 △자금부장 박태화 △IT기획부장 이희석 △중부지원부장 김동욱 △홍보부장 신우현 △유닛장 승진 △국제마케팅유닛

장 이승연 △고객상담유닛장 조창섭 △CB유닛장 이경민 △경영지원유닛장 김지용 ◇지점장 승진 △동래지점장 이경 △제주지점장 권재환 ◇부장 전보 △라인/공공사업부장 송호영 △고객서비스부장 오현아 △영업추진부장 김재현 △고객마케팅부장 제창희 △마케팅데이터사업부장 박종철 △플랫폼채널부장 궤노은 △데이터 마케팅부장 박진용 △신금융사업부장 황상만 △재무기획부장 이상한 △미래혁신부장 임형욱 △채권관리부장 박용휘 △신용기획부장 김태우 △IT상품개발부장 김강웅 △정보개발부장 송성섭 △HR부장 이상열 △감사부장 황해수

◆사노피 △재무총괄(CFO) 전무 임현정
◆중앙그룹 ◇JTBC △미디어비즈니스부 비즈솔루션담당 조희식 △“비즈솔루션팀장 이형권 △“콘텐츠솔루션팀장 박영우 △“채널사업팀장 박유현
◆뉴스웨이브 △편집인 이동림 △산업부장 손승은
◆신아일보 △인턴본사 사장 신명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가 관심 있는 대남·대미 분야의 메시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당 대회의 개최 목적이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 및 생존과 체제 결속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남·대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당 대회가 종료되었다. 제8차 당 대회는 지난 7차 당 대회에 비해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나고 인원도 2000여 명 증가하는 등 김정은 집권체제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하는 실무형 당 대회를 표방하면서 결성서 조안작성위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정상국가·시스템 국가 운영을 지향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조직개편 및 인사도 단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쇄신과 기강 확립을 도모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번 당 대회의 화두는 경제였다. 외부 정세뿐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그간 경제 분야 성과가 미진했고 앞으로는 새로운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과업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구호로 이만위천, 일심단결, 자력강생을 제시하였다. 이만위천은 인민 대중제일주의로 애인, 민생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일심단결은 당 중심의 충성심을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 국경봉쇄,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

력강생을 여전히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가 관심 있는 대남·대미 분야의 메시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서는 방역·인도협력·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합동군사훈련 중단·첨단무기 도입 등 정치군사문제 우선 해결론을 꺼냈다. 이것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에도 북한은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적대시하는 법과 제도 등의 폐지 등 근본문제 해결 우선을 주장해왔다. 대미관계에서도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를 거대한 성과로 과시했다.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표현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강대강 또는 선대선 등 맞대응(tit-for-tat)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북한이 유화적 손짓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한편으로는 수위를 조절한 측면도 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 측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

다. 미국에 대해서도 새 정부를 향한 직접 비난을 자제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당 대회의 개최 목적이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 및 생존과 체제 결속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남·대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앞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계획과 의도가 드러났다. 5년 후 북한의 성패는 경제문제가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등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경우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며 자력강생을 통해 이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당 대회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내부 혁신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딜레마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상했던 대로 조속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비판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분단 이래 70여 년의 남북관계라는 것이 적대관계를 이어오다가도 여건이 마

련되면 다시 관계개선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북미관계도 합의와 협상 등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전열을 기다리고 북한을 대회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한미공조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식 일방주의적 접근이 그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도출해내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바이든 새 정부 또한 동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미 행정부가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목표·발표사항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북한은 더욱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안보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과학 놀이터



이난영 과학칼럼니스트

한 남자가 약간 비틀거리며 지하철 안으로 들어선다. 잠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지하철이 출발하기 무섭게 칼을 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옥두문자를 퍼부으면서. 누와르 영화나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말하는 거 같지만 필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상황이다. 이 남자의 주의를 끌까 봐 두려운 사람들은 시선을 아래로 돌리고는 숨죽인 듯 앉아 있었다. 좀 극적인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긴장이나 불안, 흥분 따위를 느끼는데 이를 '스트레스(받는다)'라고 한다.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유발 요인, 즉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외부 자극이나 변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이에 대해 우리 몸이나 정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도 이에 포함된다.

스트레스 요인을 만나면 몸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장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를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라 부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 박동과 맥

박이 빨라지고, 숨도 가빠지는 현상이 나타나 건 바로 이 교감신경의 흥분 때문이다. 이런 때 천천히 심호흡을 몇 번만 해도 의외로 빨리 긴장이 완화되고 마음도 진정된다. 이처럼 호흡만 잘해도 긴장감이 줄어드는 건 왜일까?

호흡은 세포 활동에 필요한 산소를 들이 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 바로 폐(허파)다. 폐는 폐포(허파꽂이)로 이뤄진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평상시 호흡의 경우 이 폐포의 일부만을 사용하는데, 심호흡을 하면 호흡에 관여하는 허파꽂이의 수가 많아진다. 때문에 심호흡 때면 폐의 부피가 늘어나고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횡격막의 움직임도 더욱 커진다. 이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부교감신경은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조절하는 등의 기능이 있어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면 긴장이 풀리고 안정을 되찾게 된다. 결국 호흡에 의해 스트레스 조절이 가능하단 의미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빠르게 진

스트레스 다스리기

정시키는 호흡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스탠포드대학 마크 크라스노 교수와 UCLA 잭 펠드만 교수 공동연구팀은 어떤 호흡법이 스트레스를 가장 빨리 줄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125명의 피실험자들을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호흡법을 취하도록 한 후 손목에 장착된 장비를 이용해 참가자들의 호흡과 수면시간 그리고 심박 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매일 5분간 명상을 하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아이들이 흐느끼며 울 때 숨쉬는 법, 즉 두 번을 연달아 숨을 들이 마신 후 한숨 쉬듯 길게 한 번 숨을 내뿜는 호흡법으로 숨쉬게 했다. 세 번째 그룹은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 상태에서 잠시 숨을 멈추는 방식의 호흡법을 실행했고, 마지막 그룹은 의도적으로 가쁜 숨을 쉬도록 했다. 실험결과 두 번째 그룹이 취한 호흡법이 흥분 상태를 가장 빨리 가라앉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는 뱀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즉 '한숨'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호흡법이고, 이는 한숨 쉴 때 제일 많은 허파꽂이가 호

흡 운동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 '한숨'의 위상이 달라지는 순간이다.

숨 쉬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는지 역시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란 속담이 있을 만큼 눈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다. 실제로 인간은 외부 정보의 70% 정도를 눈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 때 문인지 스트레스 요인에 맞닥뜨렸을 때가 장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눈이다. 동공이 확장되고 안구가 코끝 방향으로 살짝 돌아가면서 시야가 확 좁아진다. 이런 안구의 움직임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다. 이때 고개를 들어 시선을 멀리 두고 눈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안구운동을 하면 이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자극을 받고, 이로써 공포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신경회로의 기능도 강화되는 원리에 스트레스 지수를 확연히 낮출 수 있다.

세삼 세삼사에 눈 감을 수 없다면 이제 시선을 멀리 두고 호흡을 길고 천천히 하며 살아가는 게 답이란 생각이 든다. 꼭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이어령(李御寧) 명언 "인간의 고통 속에는 무엇인가 창조적 씨앗이 숨어있다."

교수, 장관 등 다채로운 이력과 타이틀을 지닌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내는 우리 시대의 논객. 7대의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장비를 갖춘 그의 서재에서 펴낸 대표작은 '디지로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속소지향의 일본인' 등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4~.

☆ 고사성어 / 운주유약(運籌帷幄)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운용하다는 말. 모든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지시 내리는 참모사령부란 뜻이다. 원전은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劉邦)이 잔치를 베풀며 승리한 이유를 설명한 말에서 유래했다. "대체로 나라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 장막 안에서 움직여 천 리 밖의 승리를 얻게 하는 데는 장량만 못하고 [夫運籌帷幄之中決勝於千里之外吾不如張良]."

☆ 시사상식 / 쓸드족 '스마트+올드(Smart+Old)'의 줄임말. 디지털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은퇴자산을 관리해 나가는 스마트한 시니어를 뜻한다. 간편결제는 물론 다양한 SNS와 디지털 플랫폼 등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며 비대면 금융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

☆ 신조어 / 홀로가 '홀로'에 행복을 추구하는 영어 '올로(YOLO)'와 '가(家)'가 결합해 홀로 생활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생겨났다.

☆ 유머 / 모범 남성 여성단체가 공모한 '모범 남성'에 접수된 자천(自薦)편지.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 여성을 구타하는 일은 일체 없고, 일요일에는 꼭 예배를 봅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여겨 연락처로 전화하자 남자가 받았다. "네, 서울교도소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손엄지 자본시장부/eoml@

'대주주 요건' 유지가 남긴 씁쓸한 뒷맛

올해 4월부터 '대주주'로 지정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철회, 10억 원 기준을 유지기로 한 것이다. 세계 당국은 2017년에 만들었던 세계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4년 만에 12월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화답했다.

기자 역시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초 쏟아지는 상장사 임원들의 지분공시를 보면서 뒷맛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공시를 보면 많은 상장사 임원들이 연말 때도, 연초 매수를 통해 지분

을 조정했다. 지난해 자사 주식 가격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10억 원을 넘어선 이들이 '대주주요건' 지정 회피를 위해 연말 지분을 줄인 것이다. 매도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이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사실 주식에 1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도 살 만한 이들도 터다. 대주주요건 완화로 나라의 공간이 줄어들 대신 그만큼의 이득을 본 사람들은 주로 기업 임원이고, 큰손 개미다.

지난해 '대주주요건 완화'에 반대했던 이들에게 묻고 싶다. 살 만한 이들의 세계 혜택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당신이 죽겠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이슈&인물

연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소비자 인지 감수성이 기업의 경쟁력”

‘연택트’가 일상이 되며 소비패턴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소비패턴의 변화는 ‘소비자’의 위상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비대면인 대신 SNS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는 한층 강화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의 생존법에 대한 해답은 소비자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대용(47)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회장은 기업의 생존 필수요건으로 ‘소비자 인지 감수성’을 제시한다. 소비자 인지 감수성이란 소비자를 공감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삼는 전략이다.

소비자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소비자 주권 강화에 힘쓰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백 회장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의 위상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게

백대용 회장은 사법연수원 재직 중 우연한 기회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하며 소비자 권익에 눈을 뒀다. 당시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재벌규제, 환경 등 거창한 분야에 주목했다면 소시모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점이 달랐다.

백 회장은 “정치 민주화의 주역이 국민이라면 시장경제를 변화시키는 주역은 소비자”라면서 “소비자 운동이야말로 시장 민주화,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운동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시모, 한국 소비자연맹, YMCA 등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소시모 이사로 선임돼 소시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소시모 임원이 된 지 6년 만인 2019년 그는 대의원 총회에서 40대 젊은 회장에 취임하며 소시모의 대표 얼굴이 됐다.

소시모는 국내 대표 소비자 NGO 단체로, 늘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을 소비자의 눈으로 미리 파악한 후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올해는 전통적 소비자운동 분야 이외에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운동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에서 자원을 보다 오래 쓸 수 있는 노력이 소비자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는 것이 골자다. “쓰레기는 이제 돈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펼치는 자원재활용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는 위드코로나 시대 소비자주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소비자 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 시대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소비자 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기업이 소비자 주권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힘입어 이제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이면 자신의 주권을 과감하게 행사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특정 소비자의 주권 행사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기업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 리뷰시스템, 쌍방향 소통을 앞세운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등 기업 움직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자 인지 감수성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대면 거래 확산·SNS 활성화… 클릭 한 번으로 소비자 주권 행사 경제·시장 민주화의 핵심 떠올라 블랙컨슈머? 극소수의 일탈일 뿐

소비자 불만 이해하고 배려·공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 생존 집단소송·징벌적손배·권익기금… 소비자3법, 기업경쟁력 프로그램

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백 회장은 기업들에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소비자 인지 감수성’이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소비자 불만이라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인지 감수성을 갖춘 회사만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개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소비자주권이 강해진 만큼 늘어나는 ‘블랙컨슈머’는 기업들의 골칫거리다. 단종됐던 제품을 되살리고, 광고 모델도 바꿀 힘을 갖추고 있는 ‘프로슈머’ 등장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자 파워가 거센 가운데, 최근 배달앱에 달리는 악성리뷰 등 일부 악의를 품은 블랙컨슈머의 일탈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백 회장은 “블랙컨슈머의 일탈 행위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는다. 그는 블랙컨슈머라는 용어가 자칫 소비자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백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블랙컨슈머에 대해 나름대로 리스트를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갖췄다”며 “소비자의 건전한 비판을 블랙컨슈머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치부한다면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택트 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소비자 불만 및 기업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꼽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구매한 식품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33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제품 판매처인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직접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하자가 발생해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라면 입점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식이다. 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주권 강화 시대에 맞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개정도 소비자 중심으로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 업무에 쏠리게 되고, 소비자는 당사자임에도 그 과정에서 지워질 뿐만 아니라 비용, 노력, 시간 등만 투입하고 결국 손해만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앞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비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건만 봐도 소비자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 시장참여자인 기업과 소비자의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결정된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믿는다. 그는 “소비자3법은 소비자만을 보호하지는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가 챔피언에서 글로벌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다”라며 “소비자3법은 사업자의 불법 행위 방지 및 억제 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시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제까지 기업이 희생양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 모델을 설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이익을 나눠피해 업종을 지원한다는 고등분담의 취지로, 입법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강제적이기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또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은 자발적이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입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대의(大義)에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정부의 팽창재정과 막대한 재난지원금으로도 피해계층을 돕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또다시 대·중·소기업 압박해 부담을 떠넘기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연대와 협력을 내세우고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로 돈 번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내놓도록 하는데 기업 이익은 경영의 총체적 성과다. 코로나 수혜라고 단

정하기 모호하고, 그 부분을 따로 계산할 기준도 없다. 작년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정보기술)·플랫폼 업계, 게임 및 배달앱 기업 등이 비대면(非對面) 경제 확산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 스스로의 위기극복 노력과 혁신, 과감한 투자에 바탕한 경쟁력으로 일궈낸 성과다.

기업 이익을 주주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외국인 주주가 많은 대기업들은 주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대한상의와 정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상생은 기업의 자율적 규범으로 추진돼야 할 일이라며, 제도화하는 이익공유제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이 수익을 내면 세금 내고 주주에 배당한 뒤, 남은 돈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종전 22%에서 2018년 25%로 높아졌다. 기업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 또한 활성화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양극화 문제도 그렇게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절박하게 반대해온 기업규제 3법,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다시 이익을 환수한다며 기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고 있다.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경제활력만 갈수록 떨어지고 일자리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영화로 보는 세상

세상은 참 아름답고 신기하다, ‘별세’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겪어낸 팬데믹은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상처로 남겨질까? 특히 불운했던 작년 대학 신입생들은 동기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신입생 환영회도, 봄날의 축제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들에게 2020년은 어쩌면 그저 잃어버린 1년이었다. 청년기의 일 년은 성인의 그것보다 열배의 추억과 기억으로 간직된다고 한다.

‘별세’는 한 소녀의 보잘것없지만 보편적이며 순간적이었지만 찬란했던 추억과 기억의 저편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다. 스웨덴 감독 라세 할스트롬의 영화 ‘개 같은 내 인생’을 열필



떠올리게 한다. 이 영화 역시 열두 살 소년 임마르의 성장기와 그 과정의 아픔을 치유해 내는 영화였다. 다만 ‘별세’가 이 영화와 다른 점은 굳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시간을 감내하며 흐르기를 기다려낸다. 그런 톤엔 매너(분위기)라면 대만 감독 허우 샤오시엔의 ‘동동의 여름방학’과 오히려 가까워 보인다.

이렇듯 한 시대를 품이었던 나름의 명작들과 ‘별세’를 대등하게 비교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유는 일단 수상 실적으로도 변명이 된다. 해외 유수의 영화제 수상을 포함하여 국내 백상, 대종상 등 총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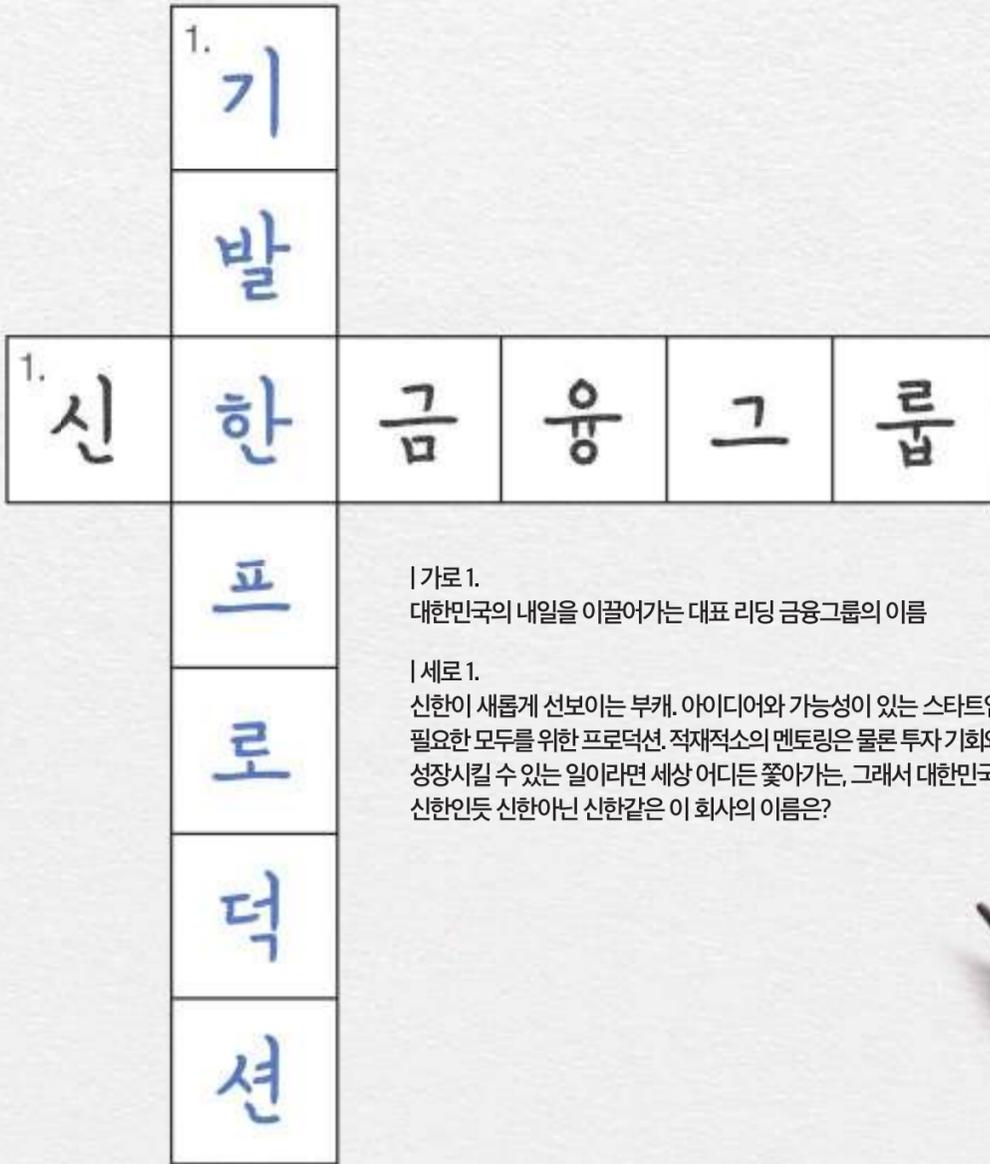
개의 상을 받았던 작품이다. 그렇다고 엄청난 시각적 쾌감이 있는 영화는 아니다. ‘별세’는 충격을 위함이 아니라 그저 멍때리기 위한 영화이니까.

별세는 1초에 적게는 19번, 많게는 90번 날갯짓하는 몸집이 자그마한 새다. 1994년은 큰 사건이 많았다. 김일성이 죽었고,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했다. 중학교 2학년 은희(박지후)는 이 시절을 ‘수십번 날갯짓’ 하면서 살아낸다. 죽일 듯 싸우다 언제 그랬

나는 듯 화해하는 부모님,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수험생 오빠, 겁 없이 남자친구를 방에 데리고 와 재워주는 언니의 ‘비행’ 속에서도 단짝친구와 남자친구, 자신을 좋아하는 후배가 삶의 소소한 행복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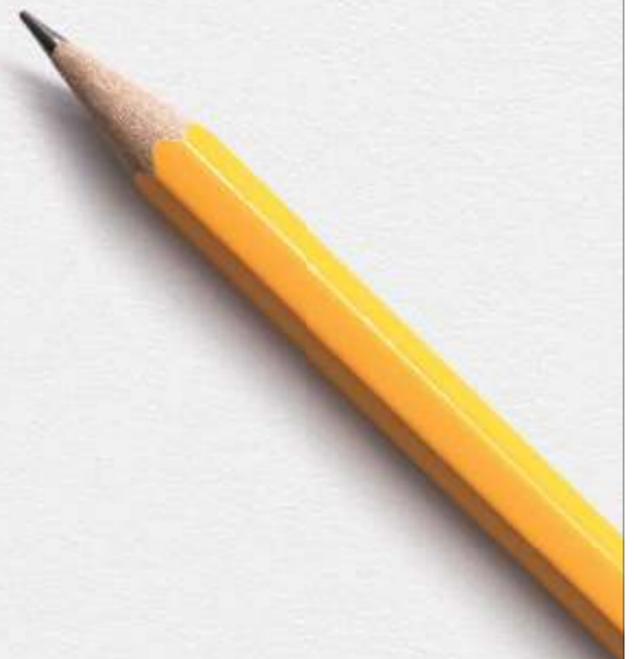
주인공 은희의 눈에 비친 1994년의 서울과 대한민국 풍경은 지금 보면 낯설기도 혹은 친근하기도 한다. 어느 날 문득 무너져 버린 성수대교를 한강변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멘토였던 학원 선생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은희는 기억해 낸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막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기를 만나 무언기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아름답고 신기하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 가로 1.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가는 대표 리딩 금융그룹의 이름

| 세로 1.
신한이 새롭게 선보이는 부캐.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청년, 소상공인 등 기회가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프로덕션. 적재적소의 멘토링은 물론 투자 기회와 홍보까지! 기회를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 어디든 쫓아가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신한인들 신한아닌 신한같은 이 회사의 이름은?



신한을 새로 쓰면 기발한 프로덕션

꿈 있는 스타트업들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갈 수 있게

신한이 기회를 발견하고 키우는
기발한 프로덕션으로 거듭납니다

스타트업, 소상공인,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 함께
혁신성장의 내일로 나아가도록

Hope Together.
Grow Together.

